



공동육아 실무용 매뉴얼

부동부동 사업을 중심으로



본 매뉴얼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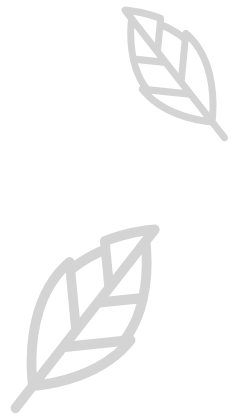


1. 사업소개	5
가. 부동산 사업이란?	7
나. 사업배경 : 부동산 사업, 왜 하게 되었는가?	8
다. 시작하게 된 계기 :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	9
2. 3년의 기록	13
가. 3년간의 사업개요	15
나. 연차별 세부 운영현황	17
다. 숫자로 보는 연차별 진행과정	40
3. 참여자들의 이야기	43
가. 네트워크 실무자들의 이야기	46
나.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이야기	49
다. 삼전복지관 실무자 이야기	74
라. 사업자문 교수의 이야기	80
4. 변화와 기대	83
가. 변화 : 실무자 및 참여자 사례를 통해 본 사업성과	85
나. 사업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계획	89
다. 기대 : FGI를 통해 본 결론 및 제언	91
부록. 공동육아 진짜 시작을 위한 실무가이드	93
제1부.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사업 이해	99
I. 공동육아 품앗이 정의	101
II. 공동육아 운영목적	101
III. 공동육아 활동 대상	101
IV. 공동육아 팀 운영현황	102
V. 공동육아 진행을 위한 실무자의 역할과 자세	102

제2부. 공동육아 운영 절차	103
Ⅰ. 공동육아 밑그림 그리기	106
Ⅱ. 공동육아 참여자 모으기	107
Ⅲ. 단단한 관계 만들기	111
Ⅳ. 공동육아 활동 지속화 및 양육자 의식 확장	115
Ⅴ.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126
※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128
제3부. 사업관련 서식	135



1. 사업소개



가 부동부동 사업이란?

1. '부동부동' 사업

영유아 양육자의 육아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망 만들기 사업 "부동부동(마을의 등지)"

부동부동은 마을 府(부)와 등지의 (등)을 사용하여 마을의 등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등지는 육아공동체를 의미한다.

부동부동은 지난 3년 간 지역 내 또래 양육자 간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한 **양육자 교류활동**, 양육자 중심의 육아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육자 간 관계를 잇고 확장시키며 지역 내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양육자 중심의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지원기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동부동은 2017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의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선정되어 2018년 부터 2021년 4월까지 3개년 연속 지원을 통해 확장·변화해왔다. 본 사업은 3개년 지원 종료 후에도 '함께 돌봄'을 목적으로 영유아 양육자 간 교류 및 공동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확인한바 기관 자체사업으로 연속 운영하고자 한다.

3. 수행기간 : 2018년 03월 ~ 2021년 04월

4. 추진개요

목 적	항 목	내 용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조성	육아공동체 형성 활동	① 커뮤니티 공간을 매개로 한 양육자 교류활동
		② 영유아 양육자 공동육아 활동
	육아공동체 생태망 조성활동	③ 영유아 양육자 중심 육아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행동
		④ 지역 내 영유아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
		⑤ 사업 운영관련 자문활동

나 **사업배경 : 부동부동 사업, 왜 하게 되었는가?**

1. 영유아 양육자,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육아스트레스 증가 관련 이슈 대두

- 2014년부터 독박육아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검색되기 시작, 2015년 서울신문에서 독박육아란 키워드로 한 시리즈 게재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용어가 급속도로 유포¹⁾
-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는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차단되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척이 없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됨을 확인

2. 송파구, 출생인구 대비 공공영역 양육지원시스템이 턱없이 부족

- 송파구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으며 총 7만 2629명이 거주하고 있음. 더불어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전문 인력에 맡기는 비율은 5% 내외
- 2017년 기준 송파구의 아이돌보미는 122명에 불과해 595명당 한명 꼴인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9.8대 1의 경쟁률 발생²⁾
- 이러한 상황 속 양육자의 가정 돌봄 증가로 송파구에서는 ‘송파맘들 오세요’ 등의 맘카페가 활발히 운영 중임. 실제 송파맘은 가입 회원 수가 약 7천명에 육박하고 총 방문자는 199,824명에 달할 정도로 다수의 양육자들이 활동 중임. 또한, 온라인 교류 외 실제 오프라인 모임을 주최하는 등 양육자 간 육아동지 만들기에 대한 높은 수요 파악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 대상 소모임 참여의 긍정적 효과 확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가족, 자녀중심의 삶의 패턴 형성으로 자신이 아닌 OO엄마, OO아 내로서의 삶 속에서 오는 역할갈등 속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경험
- 소모임 활동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른 어머니들과 공유하며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어머니들 간 관계 형성을 돕고, 다양한 양육 모델들의 코치 및 타 양육자 대상 코칭 하는 역할을 통해 내 아이, 내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 모성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효과성 입증³⁾
- 이에 영유아 양육자 대상 독박육아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모임의 형태로 공동육아의 필요성 확인

1) 나무위키. 독박육아 정의

2)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 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발적 소모임 참여 경험의 의미 탐색. 정계숙, 박지영, 류수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 12권 제 5호, 2016, Vol.12, No. 5, pp. 91-113

다 시작하게 된 계기 :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

1.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우리 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송파구 지역복지실무자 연합회(이하 송지연)가 2016년 진행 한 ‘2016년 송파구 지역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송파구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당면 문제가 무엇이고 그 심각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사회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 총 1,807명이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문제’가 595명 (32.9%)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문제’ 282명(15.6%), ‘자녀교육 및 양육 스트레스’ 241명(13.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송파구 지역복지 주민참여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FGI 결과 분석에 에 따르면 송파구 거주 지역주민의 관심사로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도출되었으며 선배맘 멘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선배 맘들과의 멘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되게 적절하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부모 코칭 강의 같은데 가면 일단 자식을 잘 키워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중략) 굳이 우리가 그런데 가서 강의를 듣지 말고 여기 잘 뭐 선배 맘들의 육아 코치라든지 부모코칭 개설해주면 되게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전수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되게 귀가 쫑긋하거든요. 그런 것에 막 괜히 발품팔고 그러지 말고 복지관에 오면 그런 게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 2014 송파구 지역복지 주민참여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내 FGI 결과

실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사한 욕구·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가족형태가 30-40대 연령의 부부+자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최근 3년간 조사한 개인 및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자녀교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매년 1·2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이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송파구 서울시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출생건수를 보이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적 특성과 주민의 자녀 돌봄 이슈에 부합하여 우리 기관은 ‘자녀 돌봄 및 양육스트레스’ 해소의 근본적 해결을 양육자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육아’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2. 복지관 내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

삼전복지관은 다년간 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나기 및 여러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자들이 아이와 처음 외출을 하는 곳이 병원 외 문화센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기관이 위치한 송파구 삼전동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기관(주민센터, 여성문화회관, 복지관)은 있지만 4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전혀 없었다. 때문에 문화센터나 키즈카페 등을 가더라도 어린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하루 종일 이용 할 수 없기에 영유아를 동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 롯데면세점의 지원으로 영유아 전용 공간 아름도서관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영유아 양육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육아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 문화센터나 키즈카페와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기에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었다.

(김OO) 문화센터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센터까지 가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또한 문화센터의 경우 다 거리가 멀어 요즘 같은 무더위에 유모차를 끌고 가기 어려워요. **아이가 자라서 외출을 하고 싶어 해서 어디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아릅인 도서관이 있어서 좋아요.**

(문OO) 복지관은 가까워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동네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좋아요.** 멀면 아이 짐도 더 많이 챙겨야 하는데 복지관은 가까워서 기저귀 같은 것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다시 집에 가서 기저귀를 가져와도 된다는 마음이 있어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어요.

- 삼전복지관 육아품앗이 참여자 간담회 중 발췌 (2017. 07. 04)

3. 영유아 양육자를 중심으로 공동육아 필요성 직접 확인

2017년 삼전복지관 내 영유아 도서관이 조성된 이후,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품앗이 조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공동육아 품앗이 참여자 모집은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영유아의 유사월령을 기준으로 모임을 조직하였는데 기관이 위치한 삼전동 외 풍납동, 잠실동 등 송파구 여러 지역에서 공동육아 활동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양육자가 공동육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양육자 교류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지금 모임이 일 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인원변동은 계속 있어요. 이사도 가고 중간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좋으니깐 송파맘 홍보로 인원충원하면서 최대한 많이 올수 있는 요일, 시간에 진행하고 있어요.** 엄마 한명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했는데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대신 그 엄마 일찍 올 수 있는 날로 요일을 옮겼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다 근처에 살다보니 품앗이를 하는 날 외에도 서로 자주 만나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하는 날도 한번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삼전복지관 아름인도서관 대관팀(베베썩썩) 상반기 간담회 중 (2017.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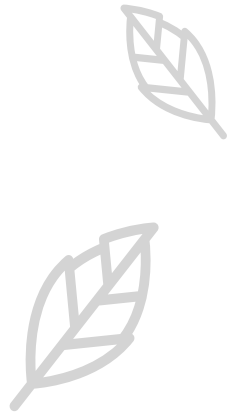
우선 그냥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이 동네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히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 키우는 엄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있으니깐요.

-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품앗이 참여회원 A (2017.8.22)

이러한 사업과정 속에서 실무자는 공동육아에 대한 양육자들의 높은 관심과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의 상황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적 기반에 의해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3개년 사업, 부동부동이 기획되었다.



2. 3년의 기록



가 3년간의 사업개요

□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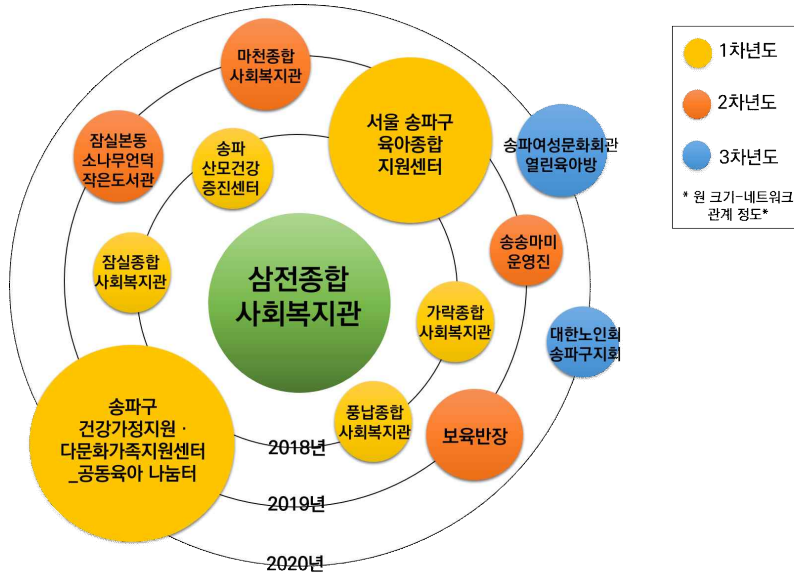
- 핵심참여자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연합활동, 이유식 만들기 참여양육자
- 주변참여자 : 교류활동, 육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온라인 설문조사(양육실태·육아환경조사) 참여 양육자



□ 핵심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유입 ✓ 공동육아 품앗이 조직을 통한 육아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간 교류 기회 제공 ✓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의 주도적 역할확대 ✓ 가족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양육자 교류활성화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안정화 ✓ 지역 내 육아와 관련한 현안 확인 및 정책제안 ✓ 주민주도의 육아공동체 모델화

□ 연계·협력 기관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활동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한 결과 2018년(1차년도)에 유관기관 및 영유아 사업기관 중심으로 형성됐던 관계망이 2019년(2차년도)과 2020년(3차년도)에는 지역 내 육아자조모임 관련 단체와 유희공간 연계·활용 가능 기관으로 보다 유연성 있게 확장되어 지난 3년간 총 12개의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확장했다.

□ 연계·협력 내용



나

연차별 세부 운영현황

“ 1년차 프로그램 : 영유아 양육자 교류기회 마련 ”

□ 성과목표

1)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이유식 만들기	- 시기별 필요한 영양소 확인 및 이유식 만들기로 참여자들이 이유식 용기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활동 후 2~3종 이유식을 챙겨 갈 수 있도록 진행	- 만족도 설문조사 시 - 후속활동 참여 의사 - 확인
아이와 함께하는 책 놀이	- 아이를 동반한 책 놀이 진행으로 책을 읽고 촉감놀이 (밀가루 놀이, 두부 놀이) 등 독후활동 진행	



<이유식 만들기 활동>



<책놀이 활동>

㉞ 교류가 필요한 이유 _ 참여자 소감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에서 혼자 이유식을 만들면서 우울했는데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즐거워요.”

“지역의 같은 엄마들이 같이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㉞ 우리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려면...

“단톡방을 첫날에 만들었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도 되고 더 금방 친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임이 오래 지속되려면 집단의 규모가 커야해요”

2) 주민주도의 육아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육아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영유아 이용이 용이한 공간 조성하여 책, 교구, 기저귀 갈이대, 부스터, 매트 등 비치	- 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내 교류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 확대 여부 확인 - 연대활동 활성화 가능성 확인
육아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 간담회	- 공간이용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활동 독려	
품앗이 교류활동1 (아나바다 장터)	- 품앗이 참여자 간 아나바다 장터 진행하여 월령이 다른 유아 간 장난감, 옷 등의 나눔활동 진행	
품앗이 교류활동2 (열린옷장)	- 아이의 성장과 관련한 특별한 이벤트(백일, 돌)가 있는 경우 열린옷장에서 관련 상세트, 의복 무료 대여	



〈육아 커뮤니티 공간〉



〈열린옷장 이용사진〉

㉞ 교류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감

“공간이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서 좋아요.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저도 기증을 받아 큰 도움을 받은거라 기증을 하고 싶는데 지금은 기증 할 물건도 마땅치 않고 돌 지난 다음에 기증할 물건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증할게요~~^^”

㉞ 이용자 중심의 공간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 “아이들이 맨발로 자주 나가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자주 만져요” _ 신발장 안전문 설치
- “아이들이 콘센트 구멍에 손가락을 넣거나 빨대 이런걸 자주 넣어요.” _ 콘센트 마개 설치
- “복도방향의 통유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불편해요” _ 블라인드 설치
- “장난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_ 분기별 필요 비품·장난감 신청서 구비

3)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공동육아 품앗이 조직	- 자녀의 월령에 맞춰 품앗이 조직	- 공동육아 품앗이팀 조직 이후 양육스트레스 척도 사전-사후 검사 진행을 통한 참여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총점 평균 10% 감소 여부 확인 -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별 인터뷰 진행(FGI)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 자녀의 월령에 맞춰 활동공유 및 진행	
공동육아 품앗이 간담회	- 품앗이팀 정기 간담회를 통한 활동 독려	
공동육아 연합활동 (아빠참여활동)	- 아빠 참여 활동을 통해 가정 내 품앗이 활동지시 독려 분위기 조성 ex) 가족운동회	
공동육아 품앗이 선배만나기	- 품앗이 활동 독려 및 활동 시 고민 되는 지점을 해결하도록 선배 품앗이 팀 연계, 컨설팅 진행	



〈공동육아 활동〉



〈아빠참여 활동〉

㉞ 연합활동, 선배만나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소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엄마도 좋았는데 남편도 좋았다고 해요^^”

“이젠 누구하나라도 좋을 때 함께 하지 못하면 허전한 기분이 드네요.”

“이제 아이들도 36개월이라는 큰 산을 하나 둘 넘기 시작하고, 바쁜 마음에 달리지만 했던 건 아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왜 이 공동육아를 시작하려고 했었는지. 자문하며 고민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생각을 나눌 용기와 여유를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

- 1) 평가항목 : 활동 참여자의 양육효능감 향상 정도 및 공동육아 의미 확인
- 2) 대 상 :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
- 3) 시 기 : 공동육아 활동 전·후 및 상·하반기 간담회 진행 시
- 4) 측정도구 및 방법 : 서식 11 양육효능감 사전·사후 척도 검사, '나에게 공동육아 품앗이란?'을 주제로 상·하반기 포토보이스 진행
- 5) 평가결과

이름	사전	사후
최*은	3.28	3.57
최*정	3.28	3.52
김*남	3.30	3.35
김*지	3.38	3.47
권*미	3.33	4.23
정*정	3.33	3.52
평균	3.32	3.61

양육효능감 검사결과





포토보이스 진행 결과



- 양육자가 말하는 공동육아 품앗이는 크게 즐거움, 쉽, 변화로 나뉘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품앗이 활동은 '즐거움'의 의미가 가장 컸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이 모여 활동함으로써 관계, 삶의 질, 엄마로서 자신의 모습 및 역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긍정적 활동 경험은 양육자 개개인의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져 양육효능감 척도검사 결과 평균 0.3%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참고사항

- 공동육아 품앗이 팀의 경우 결성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사전-사후 검사를 하는 것 보다는 평가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 사전검사 : 조직 형성 시기 / 사후검사 : 조직 활동 6개월 시점
-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사전-사후 점수가 같아도 대화 속에서 다른 의미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건강한 조직의 경우 사전-사후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물어볼 수는 있기에 그룹의 인원이 많지 않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다.

㉔ 나에게 공동육아 품앗이란? 상·하반기 간담회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김*지 참여자 (상반기) 엄마가 달려갈게	김*남 참여자 (상반기) 어울림
	
<p>애는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한 나름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장난감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엄마가 절대적인 시기잖아요. 그걸 자꾸 이제 간과하게 되는...</p> <p>그리고 이제는 미운 4살이라고, (중략) 말도 안 되는 때가 생기니까 점점 애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운게 아니라 “아 귀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와서 보면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요. (중략) 그래 나도 일주일에 한번 씩 나를 되돌아보고 나도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듣게하는...</p>	<p>제가 공동육아 신청했을 때는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때 어린이집도 가기 전이고 보내기에도 대기도 너무 길고 보낼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데 조리원 동기랑 친구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멀리 이사 가면서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까이 만나서 뭐 같이 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중략) 무작정 나가서 주민들은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 그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이거를 본 거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도 이렇게 다양한 성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언제나 우리도 그렇듯이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인 것 같아요.</p>

(하반기) 내 아이가 즐거워하는 시간	(하반기) 즐거움
	
<p>관계를 보니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 복지관 친구들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상호관계도 예전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도 논다고 하지만 긴 시간을 가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엄마와 함께 같이 오는 곳이고 엄마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는 거니 즐거워하고 마음 편해하는 것 같아요.</p>	<p>저번에는 처음 모인 거고 이제는 엄마들도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예요. 만나면 익숙한 얼굴들이고 이름도 아니까 즐거워요. 아이들도 즐겁게 만나서 놀고 장난감이 없어도 통 하나로 놀기도 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도 즐겁고 엄마도 즐거워요.</p>

4)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 실천방안 모색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실무자 간담회	- 공동육아 품앗이 진행과정 안내 및 기관별 영유아 사업 내용 공유	- 자문결과보고 내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 실천 방안 도출 내용 확인 - 육아공동체 모델화 차기년도 방향성에 대한 전략 수립 여부
실무자 교육	-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퍼실리테이터 교육 진행으로 공동육아 품앗이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확인 및 촉진자로서 노하우 습득	
사업자문	- 자문교수 대상 공동육아 운영, 사업 전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자문 진행	
공동육아 관련 자문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한 공동육아 품앗이 운영 관련 자문 진행	



〈실무자 교육〉



〈사업자문〉

㉞ 네트워크 1년차 활동

- 서울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삼전·가락·풍남·잠실종합사회복지관 총 7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실질적인 연계협력 보다는 각 기관에 대해 알고, 앞으로 지역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면서 방향성을 논의했다.

㉞ 사업자문 내용

- 1차년도 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이 넓기에 과정기록 및 활용방안, 양육효능감 척도가 계획한 성과목표에 맞는 적합한 척도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보완책으로 포토포이스 진행을 위한 방법과 2차년도 척도활용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 1차년도 사업이지만 앞으로 3년 과정 속에서 육아 공동체를 위한 생태망 조성을 목적으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2차년도 사업의 확장·변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 2년차 프로그램 : 공동육아 안정화 및 양육자 교류확대 ”

□ 성과목표별 프로그램

1)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간 교류활동 활성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육아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책, 교구 등의 비치를 통한 영유아 활동 공간 조성	- 만족도 설문조사 내 교류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확대 여부 확인
육아 커뮤니티 공간 오픈특강	- 연 3회, 월령별 2그룹을 나눠 오감놀이, 책놀이 등 영유아와 양육자 상호작용 프로그램 진행	
열린옷장	- 아이가 성장하며 일 년에 한두 번, 이벤트 성으로 필요한 옷과 소품 무료대여	



〈육아 커뮤니티 공간 오픈특강〉

㉞ 영유아 양육자 교류활성화를 위한 2년차 변화사항

1. [이용자 중심의 공간운영] 공간물품은 이용자 대상 필요물품 신청목록, SNS를 통해 신청 받은 물품 중 선별하여 구입
2. [양육자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토요프로그램 진행, 영유아 월령 확대, 다양한 시간대 운영시도
3. [프로그램 홍보창구 확대] 송파구 보육반장 연계·맘카페를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18년도 열린옷장 이용자·공동육아 참여자 대상 지인 홍보

㉞ 교류활동 참여 소감

“처음 공동체 모임이라 아이가 적응이 아직 안된 것 같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장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2) 공동육아 품앗이 안정화 및 지속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공동육아 품앗이 지속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월 2회 양육자 주도의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지속 	
공동육아 품앗이 신규 조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활동계획서/활동보고서 작성 후 삼전복지관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품앗이 그룹 간 공유 	
공동육아 품앗이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품앗이 참여 양육자들이 주최가 되어 신규 양육자 대상 설명회 진행 	
선배맘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품앗이 팀 연계, 팀 간 컨설팅 진행을 통해 품앗이 활동 시 고민되는 지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룹원들의 주도적 역할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신규 품앗이 그룹 대상 다차원 지지척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집단 전체 5% 향상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공동 간담회 진행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에 의견수렴 (연차별 육아 공동체 지속요인 파악, 양육자가 생각하는 육아공동체의 모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상 양육효능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개별 5% 향상
집단 양육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룹 양육코칭 2회기 - 그룹별 집단 양육코칭 진행을 통해 해당시기에 필요한 자극 (놀이,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그룹원 간 양육관 정립 ② 에니어그램 교육 1회기 - 서로 간의 기질파악을 통해 그룹원 관계형성 ③ 놀이교육 워크숍 1회기 - 놀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부여 	



〈공동육아 품앗이 설명회〉



〈선배맘 만나기〉



〈양육자 모임 '엄마표 교구만들기' - 무지개팀〉



㉠ 공동육아 활동, 2년차의 변화

1. 공동육아 품앗이 설명회 진행 : 기존 활동 양육자들이 선배맘이 되어 공동육아 활동을 희망하는 후배맘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활동 사례 및 운영노하우를 직접 나누었다. 활동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활동영상 까지 제작하여 발표하는 팀도 있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육아의 좋은 점들을 다른 양육자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2. 양육자 모임 형성 : 선배맘 만나기 활동 후, 엄마표 교구만들기 활동을 희망하는 여러 팀의 양육자들이 모여 월 2회 아이디어를 나누며 교구만들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3. 양육자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의 양육코칭으로 양육자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공동육아 활동 안에서 육아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부모로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지원하였다.

㉡ 선배맘으로서의 성장

2년차에는 공동육아 활동을 희망하는 후배맘들이 모임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활동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선배맘이 되었다.

㉠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

- 1) 평가항목 : 사전·사후 척도검사를 통한 5% 향상 정도 확인
- 2) 대 상 : 기존·신규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
- 3) 시 기 : 공동육아 활동 전·후
- 4) 측정도구 및 방법 : (기존·신규) **서식 12** 사회적지지 척도 검사, (신규) **서식 11** 양육효능감 사전·사후 척도 검사
- 5) 평가결과

팀	인원	사전	인원	사후
알록달록	5	3.66	4	4.05
신욕마	5	4.40	5	4.22
달큐멘터리	5	4.30	5	4.25
동그라미	5	4.16	6	3.91
사과나무	5	3.14	4	4.05

사회적지지 척도 사전·사후검사 결과

팀	이름	사전	사후
동그라미	이*란	2.96	3.15
	신*경	4.07	-
	김*희	3.88	4.11
	유*희	4.11	4.34
	이*임	3.15	-
	황*원	3.76	3.61
	김*현	-	2.92
	김*정	-	3
사과나무	오*민	2.96	3.07
	안*리	3.46	3.34
	이*주	4.11	4.00
	백*원	3.34	3.42
	김*윤	3.26	-
	왕*진	-	3.53

양육효능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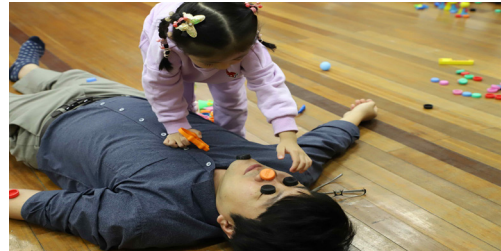
- 그룹별 사회적지지척도 및 신규 대상 양육효능감 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사후 평균점수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각 그룹별 활동시기의 차이 및 이사, 복직으로 활동인원이 변동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집단 그룹원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경우 척도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6) 참고사항

- 공동육아 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도구로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사회적지지 척도는 공동육아 활동 상황에 맞게 사업자문을 통해 원척도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실상 공동육아의 경우 척도검사보다는 구성원 간 친밀도 혹은 모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설계하여 질적 평가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질적 평가는 활동 양육자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포토보이스 방식을 추천하며 이 외 공동육아 그룹별 인터뷰를 진행하는 FGI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가족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연대활동 1 아빠참여활동	- 상반기 : 올림픽공원에서 봄, 가을맞이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생태프로그램 진행 - 하반기 : 아빠 대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코칭 진행	- 포토보이스를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생각파악
연대활동 2 가족송년회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참여가족 간 활동내용 공유 및 송년파티 진행	



〈아빠참여활동〉

㉠ 아빠참여활동에 참여한 아빠들의 소감

“아이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엄마에게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했던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아빠참여활동을 통해 실무자가 하고 싶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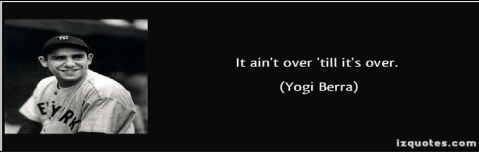

각 2회기의 연속성 있는 아빠참여 활동을 통해 아빠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이에 각 연대활동 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아빠들만 모이는] 아빠모임 혹은 아빠교육에 대한 참여 희망여부를 확인했고, 실제로 대다수가 'YES'라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아빠대상 약 4-6회 과정의 놀이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아빠들의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 그러나 어려웠던 것

아빠참여활동의 대부분이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었으나 가정마다 토요일출근 여부 및 사전에 출근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2회기 이상 연속된 만남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아빠들 중 모임활동을 희망하는 적극적인 아빠를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㉞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

- 1) 평가항목 :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생각파악
- 2) 대 상 : 프로그램 참여 양육자
- 3) 시 기 : 2회기 프로그램 진행 후
- 4) 측정도구 및 방법 : [포토보이스] 프로그램 참여 전·후 '나에게 육아란?'을 주제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담은 사진 1장과 의미를 문자로 전송

포토보이스 예시) 나에게 육아란?	
참여 전	참여 후
 <p>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요기베라가 뉴욕 메츠 감독 시절 뉴욕 메츠는 시즌 중반까지 꼴찌를 하고 있었고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이번 시즌을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위와 같이 대답했다. 그후 뉴욕 메츠는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육아가 힘들고, 육아로 지쳐도 포기하지말고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p>	 <p>가족 육아가 힘들고 야근에 지치더라도 아이가 해맑은 웃음으로 보답할 때 큰 힘을 얻는다. 함께 웃고 웃음을 지켜주는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고 싶다.</p>

5) 포토보이스 결과

포토보이스 결과			
부정		긍정	
어렵다	마라톤	사랑	추억
지옥	무거운 것	여행	봄 햇살
행군	극한노동	경험, 추억공유	에너지
배움의 길	책임감	교감과 소통/공감	인생교육
힘들다	모험	함께 성장/성장과정	꽃
끝날 때까지 끝난게아니다	즐기고자 애쓰는 것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웃음	가족, 보살핌	소중한 것	사진
		초콜릿	당연한 것
		애트함	

4) 주민 중심의 육아 공동체 형성 실천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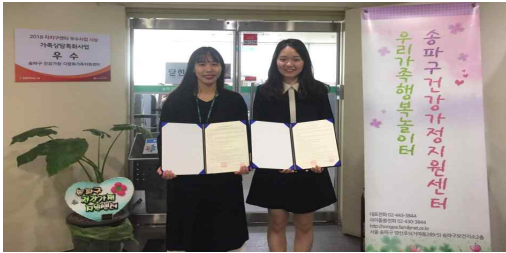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원	-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오감놀이, 책놀이 등을 주제로 한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	- 간담회 회의록 내 지역 내 육아현안, 의제확인 및 대안모색, 협력기관 연대활동 계획수립 여부 확인
맘카페 운영진, 보육반장 만남	- 맘카페 운영진, 보육반장 주최의 보육반상회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육아현안 및 의제확인,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	- 서울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와 육아 공동체 사업 관련 내용 공유를 통한 지역 내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현황 조사 등 연대활동 진행 준비	
온라인 양육실태조사	-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 양육자의 육아 환경과 관련한 양육실태조사 문항 기획 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실무자 연대활동 -리플릿 제작	- 온라인 양육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영유아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내용 및 활동참여 정보를 담은 리플릿 제작 후 배포	
사업자문	- 2차년도 사업전반에 관한 점검 및 방향성 검토 및 3차년도 육아공동체 모델화를 위한 연구주제 모색 및 자료수집 점검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원〉



〈보육 반상회〉



〈업무 협약〉



〈리플릿_공동육아 활동가이드〉

㉔ 네트워크 2년차 활동

- 지역 내 공동육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주축으로 간담회 및 실무자 연대활동, 공동육아 팀 간 만남 진행
- 영유아 사업기관 외 보육반장, 맘카페 운영진과 같은 영유아 양육자 활동지원 단체들과의 만남 추진

	5~6월	7~8월	9~10월	11~12월
양육실태조사	문항구성	조사실시	결과공유	응답자 대상 추천진행
리플릿 제작			리플릿 구성논의	리플릿 제작
보육반장과의 만남(보육반상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논의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논의		*서울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반장 주축으로 진행
맘카페 운영진과의 만남				송송마미와의 2회 만남, 협력활동 모색
공동육아 활동 지원 책자발간	책자발간 계획공유 기관별 정보제공	책자목차 정리 및 역할배분		*서울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축으로 진행
선배맘만나기	팀 간 연계논의		2팀 연계활동 진행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업

㉞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과 함께 참여한 보육반사회,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발언

발의주체 :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및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알록달록팀'
①공동육아 활동팀의 단체등록 및 할인적용 ②출산가정 대상 홍보필요 ③교육, 활동관련 통합예약포털 사이트 운영 ④엄마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⑤토론회 및 간담회 진행 시 자녀대상 돌봄 지원 필요 ⑥활동 팀 대상 부모교육 지원
발의주체 : 삼전복지관
① 활동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 내 유휴공간 확인 및 이용활성화 필요 ② 활동지원금 한계에 따라 공동육아를 주제로 한 구 차원의 지원 사업 필요
발의주체 : 송파구 보육반장
① 기존 활동모임을 중심으로 신규 회원 충원필요 ② 품앗이 활동에 대한 인식미비 ③ 맞벌이 가정 대상 주말활동에 대한 수요 및 활동공간 부족

〈총 3회 보육반장과의 만남 회의록 중 발췌〉

㉞ 네트워크 2년차 활동에 함께 참여한 양육자들의 소감

- 유관기관 실무자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실무자는 영유아 양육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는 안내하여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마련했다.

“무료놀이체험실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교육종일 때 아기들을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한걸 먼저 건의해주셔서 경청만 한 것 같네요”

“다른 어머님들이 다 저희가 말씀하려던 걸 말씀하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 9/19 동그라미팀 SNS 발췌

“다음번에 이* 어미님과 다*어머님도 무언가 복지관이나 육아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송파구에 건의하고 싶은 거 생각해주셨다가 참여하셔서 직접 말씀 전해주세요. 참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렇게 생각 안해도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속시원하네요. 다음번에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던 안하던 기대됩니다.”

- 5/29 보육반장과의 만남 회의록 발췌

“ 3년차 프로그램 :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조성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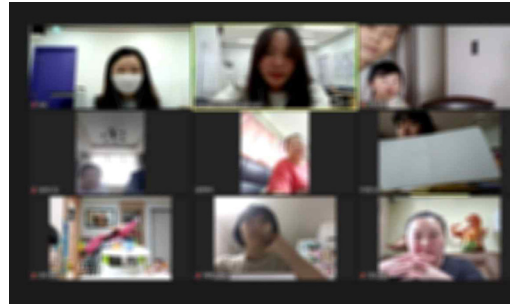
□ 성과목표별 프로그램

1) 커뮤니티 공간을 매개로 한 양육자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p>협력기관 중심 공동육아 신규그룹 조직 활동</p>	<p>1) 홍보활동 - 2회기 : 공동육아 신규그룹 조직활동 참여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놀이교육 진행</p> <p>2) 조직활동 ① 피그베베팀(오프라인팀) - 1회기 : 공동육아 품앗이 오리엔테이션 : (집단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영상배포)를 통한 활동소개 및 운영목적 안내 - 2회기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관계형성 지원 : (공동육아 카페운영)을 통한 참여자 소개, 공동육아를 통해 기대하는 점, 참여동기 등 파악 - 3회기~5회기 : 전문강사 주도의 놀이특강 PG 진행 - 6회기 : 관계형성 활동 : 빙튀기 놀이, 운영규칙 및 역할정하기</p> <p>② 참새맘북클럽 (온라인팀) - 1회기 : 공동육아 품앗이 오리엔테이션 : (온,오프라인 개별면담)을 통한 활동소개 및 운영목적 안내 - 2회기~4회기 : 전문강사 주도의 온라인 그림책 교육 진행 - 5회기~6회기 : 온라인 운영회의 2회기</p>	<p>-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내 활동참여 및 양육자 교류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 확인</p>
<p>공동육아 신규그룹 [씨앗팀] 운영</p>	<p>1) 피그베베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가정 내 개별활동으로 지원</p> <p>2) 참새맘북클럽팀 공동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독후활동 공유 및 월 1회 온라인 만남을 통한 운영회의·활동 소감공유</p>	



〈협력기관 중심의 신규그룹 조직〉



〈온라인 공동육아 활동그룹 조직〉

㉞ 신규그룹 조직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1. 협력기관 [공간] 중심의 활동그룹 조직 : 송파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과 연계한 새로운 거점 공간에서의 신규 그룹 조직으로 총 4가족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근 양육자들의 공동육아 활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온라인] 공동육아 활동그룹 조직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책을 매개로 온라인 만남을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 그룹 조직으로 총 8가족이 참여했다. 특히 온라인 공동육아 그룹은 송파구 전 지역 및 타 구 양육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㉞ 신규그룹 조직 활동에 참여한 양육자들이 좋았던 점

“서로 탄탄한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공통점이 있어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 엄마들과 교류가 생겨서 좋아요”

㉞ 신규그룹이 잘 조직되기 위한 환경들 _ 양육자 대상 만족도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순위	관계형성을 위한 양육자들의 역할	기관차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
1	활동에 대한 정기적 참여 및 출석 잘하기	공동육아 활동 관련 교육
2	친목활동 (공동육아 시간 외 별도의 만남)	정기회의를 통한 운영지원
3	SNS를 통한 적극적 소통 (의견 나눔 및 정보공유)	-

2) 양육자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육아 안정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사업OT&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OT : 온라인 영상제작 및 배포를 통해 3년차 활동지원을 통한 운영방향성 공유, 밴드 개설에 따른 의견수렴 등 - 워크숍 1회기-(온라인) 타 구의 공동육아 사례나눔 2회기-(온·오프라인) 팀별 자체워크숍을 통한 지역 내 활용 가능자원 공유, 선배맘으로서 역할위한 방안논의. 자조모임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정도 3% 향상 - 육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준비 여부
공동육아 새싹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 주도의 활동 진행을 위해 월별 활동계획서/활동보고서 작성 후 삼전복지관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품앗이 그룹 간 공유 ※ 코로나19 이후 - 공동육아 팀 대상 밴드운영을 통한 근황나눔 및 이벤트 활동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놀이활동, 간식, 장소추천, 근황나눔 등 진행 - 최소 월 2회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지속 /팀 대상 밴드운영을 통한 안부확인 	
역량 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양육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놀이감을 활용한 자녀 놀이법 지도 ·상반기 : 부모자녀 간 오감발달놀이법 2회 ·하반기 : 온라인 요리활동 2회 ·21년 상반기 : 나만의 독후활동 공유 1회 - 배운 놀이를 공동육아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각 가정 내 개별키트 활동>



<온라인 교육>

㉔ 코로나 19와 함께 한 20년 공동육아 활동모습

1. [개별키트] 활용 : 코로나와 함께 가정보육 시간이 증가했다. 이에 공동육아 또한 개별키트 활동으로 각 가정에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들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했다.
2. 공동육아팀 [밴드] 운영 : 밴드는 타 팀과의 소통, 놀이 아이디어 공유, 이벤트 등의 활동으로 '양육자 간 연결고리' 형성을 통한 정서적 위안의 창구가 되었다.

“대면모임이 없다보니 홀로 육아 하는 느낌이었다가 다른 팀과 함께 밴드 운영을 하다 보니 다시 소속감과 공동체 형성이 생기면서 열심히 육아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한 교육 및 워크숍 : 비대면 소통창구 활용으로 온라인 교육 및 워크숍 진행

㉕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좋았던 복지관의 역할 Best 3



순위	항 목	응답률
1	가정용 놀이키트 구입을 위한 공동육아 활동비 사용	52.6%
2	밴드운영을 통한 이벤트 진행, 놀이정보 및 팀 간 근황공유 등	31.6%
3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놀이 및 활동	15.8%

3) 지역 내 육아관련 현안확인 및 의제발굴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공동행동 시도 [실무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사업 운영계획 공유 및 협력기관 중심 신규그룹 조직활동을 위한 공간 연계·협력 가능여부 검토 - 송파구 영유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공유 및 대안모색 	
육아현안확인 [온라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송파구 내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자들이 실제로 관심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제 발굴 - 수렴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 대상 공유 및 구민청원 의견 발의 준비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청회 사전모임 1회 :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와의 주민공청회 사전 기획회의 진행 - 주민공청회 (가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송파'를 주제로 한 육아 토크콘서트) 진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공유 후 구민청원 발의 안건 3가지 선정 - 주민공청회 사후모임 2회 : 주민공청회 참여자 대상 후속활동으로 선정된 3가지 안건에 대해 발의자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제안서 작성 진행 	- 양육자 중심의 육아현안 도출 및 해결시도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송파 구민청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파 구민청원 : 삼전복지관을 주축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 개방을 통한 영유아 돌봄공간 확충제안 진행 2) 주민제안사업 : 2명의 안건 발의자를 중심으로 바닷교체와 그늘막 설치, 삼발공원·나루터공원 시설 점검 관련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청원의 경우, 각 안건 당 20일 간 청원기간을 가진 후 부서 답변 완료 	

3. 아이 키울 때 송파구의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분야인가요?(최대2개)

- 돌봄(시간제 돌봄서비스 부족, 양육비 부족, 돌봄 정보 부족 등)
- 안전(통학로 교통 안전, 노후 놀이터 안전 등)
- 의료(의료시설의 수와 질 부족, 검사비 부담 등)
- 교육(보육기관 시설 수와 질 부족, 부모교육 기회 부족 등)
- 이동권(대중교통, 주차장, 유료차 이용불편 등)
- 쉼과 놀이(실내외 놀이 공간, 놀이 프로그램 부족 등)
- 문화(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인식, 아북의 육아 참여 부족 등)
- 정보(정보수집 어려움, 검색의 불충분 등)
- 기타:

육아현안확인 <온라인 설문조사>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 온라인 양육환경조사 실시 및 진행결과

- 주 제 : '송파구에서 아이키우기 어떠신가요?'를 주제로 한 양육환경조사
- 항 목 : 자녀양육 기간, 양육 시 송파구의 좋은 점, 불편한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
- 응답기간 : 20년 05월 ~ 10월
- 참여대상 : 송파구 영유아 양육자 59명
- 응답결과



< 아이 키울 때 가장 불편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

응답결과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 한 점으로 교육(보육기관 시설 수와 질 부족, 부모교육 기회 부족 등), 쉼과 놀이(실내외 놀이공간, 놀이프로그램 부족 등)가 30.5%, 돌봄(시간제 돌봄 서비스 부족, 양육비 부족, 돌봄 정보 부족 등)이 28.8%, 안전(통학로 안전, 노후 놀이터 안전 등)이 20.9% 순으로 응답됨.

특히 1순위 응답 <교육> 분야에서는 부족한 보육기관 수에 대한 대안으로 '원을 더 늘릴 수 없으면 공동육아 같은 방안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라는 의견과 <쉼과 놀이>에서는 공간사용 및 여러 놀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확인.

- 공 유 : 실무자 간담회 내 결과공유를 통한 기관별 필요역할 확인, 주민공청회 참여 양육자들과의 결과공유를 통한 구민청원 발의안건 선정

㉠ 주민공청회 진행을 통해 선정된 안건

- 안건 1. 송파구 내 전체 공원 및 놀이터, 학교의 우레탄바닥을 모래(흙)나 천연 잔디 또는 돌바닥으로 교체(정비) 및 그늘막 설치, 창의놀이터 만들기
- 안건 2. 도서관을 활용하여 돌봄 교실 확대와 영유아,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
- 안건 3. 송파구 삼전동 노후놀이터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모래놀이터 소독 진행

㉡ 이후 구민청원 2건, 주민제안사업 2건 신청

- 선정된 3가지 안건 발의자를 중심으로 안건 구체화를 위한 온라인 후속모임 2회 진행 후 구민청원에는 안건 1과 2, 주민제안사업에는 안건1과 3 신청
- 안건에 대한 구민청원은 약 3주간 진행 후 부서답변까지 완료

구민청원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제안사업 개요</td> <td> 송파구 내 전체 공원 및 놀이터, 학교의 우레탄바닥을 모래(흙)나 천연 잔디 또는 돌바닥으로 교체(정비) 및 그늘막 설치, 창의놀이터 만들기 </td> </tr> <tr> <td>사업 위치</td> <td>잠실근린공원, 삼성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삼전근린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발어린이공원 외 송파구 모든 공원 및 놀이터, 학교</td> </tr> <tr> <td>제안 취지</td> <td>행아 및 유아, 어린이 외 모든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가득한 바닥의 개선 필요. 뜨거운 여름에 이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나 모래놀이터 위에 그늘막 설치 필요</td> </tr> <tr> <td>제안 사업 내용</td> <td> ①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의 우레탄 바닥을 뜯어내고 모래나 흙, 돌 천연 잔디 또는 다른 몸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체 요구. -p3- ②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필요. -p4- ③ 모래놀이터 근처에서 물을 이용해 놀 수 있게 수도 시설의 위치를 바꾸거나, 수도시설 근처로 모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모래놀이터의 장점을 전파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p5-7- -잠실근린공원, 삼학사어린이공원에 모래공간과 수도시설의 거리가 멀. ④ 놀이터(공원)에 주인 없는 길짐승을 위한 고양이 화장실과 급식소, 비닐렌트 설치. -모래놀이터에 배변 보는 것 방지와 공존을 위해. -p8-9- ⑤ 창의 놀이터 제작-"아이들"과 주민에게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지 공모하여 만들기. -모형, 질라인, 놀이언덕, 자갈밭과 돌 언덕, 토맹물린, 멀티코트, 워터드럼, 워터터널, 바닥분수, 자전거놀이터 등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 설계. -p10-17-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성중구 어린이 꿈공원 외.. </td> </tr> </table>	제안사업 개요	송파구 내 전체 공원 및 놀이터, 학교의 우레탄바닥을 모래(흙)나 천연 잔디 또는 돌바닥으로 교체(정비) 및 그늘막 설치, 창의놀이터 만들기	사업 위치	잠실근린공원, 삼성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삼전근린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발어린이공원 외 송파구 모든 공원 및 놀이터, 학교	제안 취지	행아 및 유아, 어린이 외 모든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가득한 바닥의 개선 필요. 뜨거운 여름에 이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나 모래놀이터 위에 그늘막 설치 필요	제안 사업 내용	①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의 우레탄 바닥을 뜯어내고 모래나 흙, 돌 천연 잔디 또는 다른 몸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체 요구. -p3- ②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필요. -p4- ③ 모래놀이터 근처에서 물을 이용해 놀 수 있게 수도 시설의 위치를 바꾸거나, 수도시설 근처로 모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모래놀이터의 장점을 전파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p5-7- -잠실근린공원, 삼학사어린이공원에 모래공간과 수도시설의 거리가 멀. ④ 놀이터(공원)에 주인 없는 길짐승을 위한 고양이 화장실과 급식소, 비닐렌트 설치. -모래놀이터에 배변 보는 것 방지와 공존을 위해. -p8-9- ⑤ 창의 놀이터 제작-"아이들"과 주민에게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지 공모하여 만들기. -모형, 질라인, 놀이언덕, 자갈밭과 돌 언덕, 토맹물린, 멀티코트, 워터드럼, 워터터널, 바닥분수, 자전거놀이터 등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 설계. -p10-17-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성중구 어린이 꿈공원 외..
제안사업 개요	송파구 내 전체 공원 및 놀이터, 학교의 우레탄바닥을 모래(흙)나 천연 잔디 또는 돌바닥으로 교체(정비) 및 그늘막 설치, 창의놀이터 만들기								
사업 위치	잠실근린공원, 삼성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삼전근린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발어린이공원 외 송파구 모든 공원 및 놀이터, 학교								
제안 취지	행아 및 유아, 어린이 외 모든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가득한 바닥의 개선 필요. 뜨거운 여름에 이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나 모래놀이터 위에 그늘막 설치 필요								
제안 사업 내용	①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의 우레탄 바닥을 뜯어내고 모래나 흙, 돌 천연 잔디 또는 다른 몸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체 요구. -p3- ② 송파구 내 모든 공원과 놀이터,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필요. -p4- ③ 모래놀이터 근처에서 물을 이용해 놀 수 있게 수도 시설의 위치를 바꾸거나, 수도시설 근처로 모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모래놀이터의 장점을 전파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p5-7- -잠실근린공원, 삼학사어린이공원에 모래공간과 수도시설의 거리가 멀. ④ 놀이터(공원)에 주인 없는 길짐승을 위한 고양이 화장실과 급식소, 비닐렌트 설치. -모래놀이터에 배변 보는 것 방지와 공존을 위해. -p8-9- ⑤ 창의 놀이터 제작-"아이들"과 주민에게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지 공모하여 만들기. -모형, 질라인, 놀이언덕, 자갈밭과 돌 언덕, 토맹물린, 멀티코트, 워터드럼, 워터터널, 바닥분수, 자전거놀이터 등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 설계. -p10-17-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성중구 어린이 꿈공원 외..								

㉢ 안건 발의에 함께 참여한 양육자들의 소감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반갑기까지 했어요.”

“시작은 작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서 언젠가 해결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4)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델화 방안 제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평가도구 및 방법
사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회 자문 진행으로 FGI 인터뷰 질문설계 및 준비사항 확인, 실무용 매뉴얼 관련 자문 	
실무용 매뉴얼 발간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지속화팀 대상 FGI 기법을 활용한 인터뷰 진행으로 총 12명, 3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FGI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육아의 긍정적 효과, 성공요인, 공동육아가 지속되기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질적분석 진행 - 전체적으로 FGI 및 3년 사업의 과정기록을 통해 공동육아의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지역 내 필요성과 지속화를 위한 요인 분석 -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실무용 매뉴얼 발간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그룹별 인터뷰 진행을 통해 양육자가 생각하는 공동육아 활동의 의미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 파악

다 숫자로 보는 연차별 진행과정

□ 1년차 (2018년)

영유아 양육자들이 만나고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장 형성기

1	186	1개 기관의 오픈특강에 총 186명의 양육자가 참여하고	
5	5개의 공동육아 그룹이 조직되었으며		
6	1	2	6개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간담회 1회, 실무자 교육 2회 진행

2018년은 부동산 사업 운영 첫 해로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간을 알리고 공동육아 활동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이유식 만들기, 책놀이 활동을 주제로 상·하반기 오픈특강을 각 3-4회기로 진행하여 연간 총 16회를 운영했다.

또한, 본격적인 공동육아 사업 시작에 앞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수집하는 양육자들의 특성에 따라 복지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공동육아 게시판은 별도로 만들어 공동육아 사업소개, 공동육아 신청, 열린옷장, 품앗이 소통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유아 양육자들이 복지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백일 및 돌 소품을 대여하는 열린옷장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열린옷장 이용후기 덕분에 삼전복지관이 홍보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전화를 통한 직접 문의 외 공동육아 신청 게시판에도 대기자들이 생기면서 공동육아 품앗이는 2018년 첫 해 개별신청을 통한 2그룹, 이유식 및 책놀이 프로그램 후속활동을 통한 2그룹, 지역 내 육아모임 연계를 통한 1그룹, 총 5그룹이 조직되었다.

더불어 2018년 첫 해에는 공동육아 활동을 위한 지역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사업기관 및 영유아 사업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했다. 송파구 내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삼전복지관이 최초로 영유아 양육자 대상 공동육아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영유아 전문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기관별 사업공유 및 실무자 교육은 지역적으로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송파구 네트워크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 2년차 (2019년)

영유아 양육자들의 활동 공간 및 영역 확장기

3	86	3개 기관의 오픈특강에 총 86명의 양육자가 참여하고	
3	2	1	3개의 공동육아 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2개의 공동육아 그룹, 1개의 양육자 모임이 조직되었으며
465	2	465명의 양육자가 지역 내 양육실태조사에 응답하고 2개의 공동육아 그룹이 보육반상회와 구청장과의 만남에 참여하였으며	
4	3	2	영유아 사업기관과 보육반장, 맘카페 운영진과의 만남으로 4개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3회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양육실태조사 실시·리플릿 제작 등 2건의 협력활동 진행

2018년을 시작으로 2019년도는 공동육아 활동이 안정화되고, 많은 양육자들이 복지관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9년도는 부동부동 사업이 새롭게 확장·변화되었던 해로 지역 내 여러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영유아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2개의 협력기관을 선정해 특강을 지원했다.

공동육아 활동은 2019년이 되면서 이사 및 출산, 복직 등의 이유로 5개 중 3그룹만 활동을 지속하였고, 2개의 신규그룹을 새롭게 조직했다. 이후 실무자는 그룹원 간 결속력 도모를 목적으로 양육자 교육 및 선배 육아모임과의 만남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구 만들기에 관심 있는 양육자들이 모여 무지개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네트워크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이 보육반상회, 구청장과의 만남 안에서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더불어 공동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의 기관과 지역 내 양육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본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육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들의 실질적 활동욕구를 확인하고 각 기관별 필요역할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9년은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육아 참여 양육자들의 활동영역과 역할이 여러 방면으로 확장되면서 주민주도의 육아공동체 형성에 한 발 가까워진 한 해였다.

□ 3년차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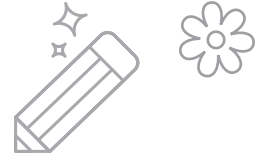
양육자 중심의 육아공동체 생태환경 조성기

2	82	온·오프라인을 통한 2개기관 오픈특강에 총 82명의 양육자가 참여하고	
5	2	1	5개의 공동육아 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2개의 신규그룹 중 1개의 그룹이 온라인 공동육아로 최초 시도되었으며
59	11	59명의 양육자가 온라인 양육환경조사에 응답했고 이 중 공동육아 활동양육자 포함 11명의 양육자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제안사업, 구민청원을 개진하였으며	
3	4	10	3개 기관과 총 4번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실무용 매뉴얼_ '부동부동 사업을 중심으로' 발간 후 10개 기관 대상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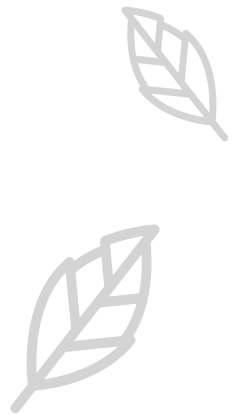
2020년은 공동육아 참여 양육자들이 선배맘으로 역할하며 활동경험을 지역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 19 감염증의 여파로 많은 계획들이 조정·축소되는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육자들과 소통하며 공동육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온라인 밴드 활동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공동육아 활동은 키트를 구입 후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가정교육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양육자들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를 놓치지 않도록 '따로 또 같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육아 신규그룹을 조직한 결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2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 중 1개의 그룹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육아로 최초 운영되었다.

더불어 올해는 '송파구에서 아이키우기 어떠신가요'를 주제로 온라인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육아현안을 확인했다. 설문조사 및 주민공청회 기획과정에 공동육아 양육자들이 함께 참여하였기에 지역 내 양육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이들의 의견이 주민제안사업, 구민청원이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3개년 기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공동육아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실무용 매뉴얼을 발간하고 총 10곳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공동육아를 지속하고자 하는 양육자들의 의지로 새로운 형식의 공동육아 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한 해이자 3개년 기획사업을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육아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고함에 따라 양육자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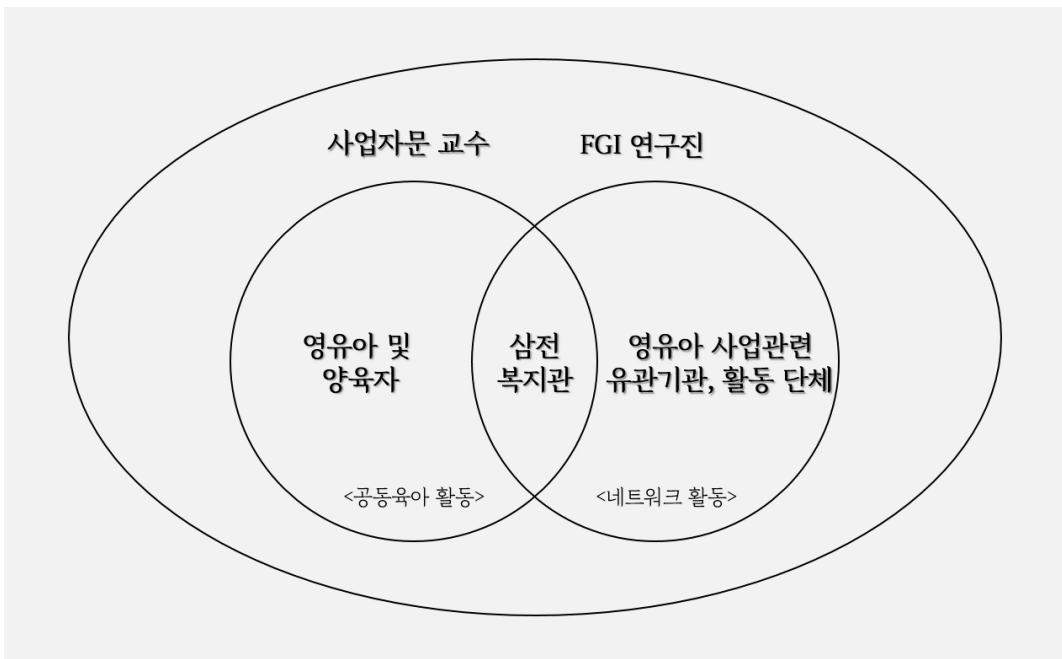
3. 참여자들의 이야기



본 part에서는 사업의 핵심 참여자인 영유아 양육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업관련 유관기관·활동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의 일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실무자가 느낀 소감, 사업자문 교수의 진심어린 조언을 담았다.

본 part가 앞으로 공동육아를 시작하고자 하는 기관 혹은 실무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육아공동체 생태계 조성활동에 함께한 이들



- part 1. 네트워크 실무자들의 이야기
- part 2.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이야기
- part 3. 삼전복지관 실무자 이야기
- part 4. 사업자문 교수의 이야기

가

네트워크 실무자들의 이야기

네트워크 활동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유관기관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과정에서 확인한 영유아 양육자 대상 활동 지원사업의 긍정적 요인 및 한계·보완에 대한 이야기이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하는 점

1) 관할구역의 영유아 양육자 모임활동 수요 확인

협력기관 대상 프로그램 지원, 실무자 간담회 등 여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과정 속에서 영유아 양육자들의 공동육아 활동에 대한 수요는 송파구 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원 기관 실무자) **영유아 양육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열자마자 접수가 몰려 금방 마감되었고 대기로 문의하는 양육자들도 많아 실제 영유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 진행 당일 신청자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프로그램실 밖에 머무르면서 불참자가 있을 경우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양육자도 있었음.

(송파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실무자) 열린육아방 이용자 다수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오후에 어린이집 하원을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임. 특히 영유아 양육자의 경우 독박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음. 때문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다보니 **비대면은 원치 않아함. 이용자들은 또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함.**

(맘카페_송송مام미 운영진) 올해 보육반장을 통해 기존 활동중인 공동육아 품앗이에 새로운 회원을 유입할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음. 또한, 실제로 **어린이집 설명회를 통해 영유아 양육자들을 만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공동육아 모임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내 공동육아 활동을 희망하는 양육자들은 많은 반면, 양육자들이 공동육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임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은 현저히 적기에 기관과 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공유,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실무자) 열린육아방은 공동육아를 운영하기 보다는 양육자들의 모임을 위한 공간대관 등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서브역할이 가능함. 이용자가 공동육아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열린육아방에서도 모임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 **공식적으로 공동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아쉬움. 기관별 수행 역할이 다르니 정확히 역할을 정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음.**

(송파구 보육반장) 최근에 엄마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지역카페에서 또래 개월 수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 엄마, 아이 친구 찾아요.'라고 모집 글을 올리고 몇 명이 모여 그룹을 형성한다고 함. 대다수 모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모임들은 품앗이이기보다는 친목이 위주지만 이런 것들도 엄마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알게 된 경우이며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엄마들이 가장 쉬운 친목으로 접근한 경우임.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 했으면 함.**

2. 한계 및 아쉬움

1) 지역 내 활동공간 부족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송파구 27개동에 비해 유휴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지속적으로 발언되었다.

(송파구 보육반장A) 송파구에 아름다운 도서관이 마천복지관과 삼전복지관 두 곳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마천복지관은 좌식이 아닌 프로그램실 형식으로 영유아 대상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공간이 항상 안타까움. 엄마들이 원하는 건 공간임.** 매일 키즈카페를 가기는 부담이 되기에 상담 문자 중에는 '무료로 하는 키즈카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려달라'는 엄마들도 있음.

2) 맞벌이 가정 대상 주말활동에 대한 수요 및 활동공간 부족

공동육아 활동의 대부분이 평일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정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내 공동육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활동 지원 및 주말운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송파구 보육반장B) : **맞벌이 가정은 보통 주말에 가족 간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어함. 아**
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또
래 간 어울릴 기회가 없음. 그래서 더욱이 품앗이 활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주말에는 운
영되고 있는 유휴공간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움.

나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이야기

참여 양육자들의 이야기는 지난 3년간 삼전복지관 소속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FGI 인터뷰를 진행 후 인터뷰 응답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 입장에서 느낀 공동육아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한 기록이다.

1. FGI를 준비, 진행에 함께한 사람들

- 김진숙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FGI 질문 설계
- 최경옥 박사 : FGI 질문 설계 및 진행, 분석

2. FGI 진행목적과 질문

본 part는 3년간 진행했던 부동부동 사업 중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한 양육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질문은 총 3가지로 사업의 참여하게 된 경로와 기대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바람이 있는가? 로 구성되었다. 자료는 1~3년동안 본 사업에 참여 한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12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 3차례에 걸친 FGI(Focus Group Interview)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FGI 진행방법

FGI는 1:1면접 방식이 아닌 한 가지 주제에 그 경험을 한 집단을 모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인터뷰 방식이다. 이에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겠다고 신청한 12명의 참여자를 1월 26, 27, 28일 3일에 걸쳐 각 4명씩 3팀으로 구성하였고 1시간 30분 ~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중인 참여자들을 위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접속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동의를 한 참여자들에게 미리 시간과 접속방법을 안내한 후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통해 참석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

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시작 전 다시 한 번 본 인터뷰의 목적을 안내 한 후 녹음과, 녹화, 녹취 등 대해 동의를 구했으며 인터뷰를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였다.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아동의 모, 즉 여성이었으며 30~40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평균 사업 참여기간은 2년 4개월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6세이다.

· 조사대상 : 부동부동 사업에 참여한 육아 경험이 있는 참여자 12명

1그룹			2그룹			3그룹		
성 명	활동연차	자녀연령	성 명	활동연차	자녀연령	성 명	활동연차	자녀연령
김*희 D	3년차	7세	최*혜 H	3년차	5세	권*미 I	3년차	6세
김*정 A	2년차	4세	김*희 E	2년차	4세	김*지 L	3년차	7세
백*원 C	2년차	5세	왕*진 F	2년차	5세	이*정 J	3년차	5세
이*주 B	2년차	5세	조*정 G	2년차	5세	유*희 K	2년차	4세

4.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경험

양육자들의 경험은 사업의 참여경로 및 계기,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 변화와 성장, 성공 요인, 사업이 지속되기 위한 제안이라는 5개의 핵심개념으로 구성되었다.

1) 공동육아사업(부동부동)의 참여경로와 접근유형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공동육아사업에 오기까지의 계기는 크게 홍보물을 통해 복지관의 소식을 접하거나, 주위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찾게 된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1) 복지관의 소식을 접하다

복지관 소식을 접하는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우연하게 접하는 홍보물이나 그것을 계기로 검색을 하다가 찾아온 경우가 있었고 복지관 자체 모집하는 홍보물을 보고 신청을 하기도 했다.

저는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을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되게 좋구나 느끼던 중에 **도서관에서 복지관 소식지를 접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D>

송파소식지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검색도 직접 해보고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사례 F>

저는 **복지관에 자체 모집을 하는 홍보물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례 I>

복지관 전단지를 봤던 거 같은데 그거를 보고 제가 직접 그 삼전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018년도부터 참여를 했어요. <사례 L>

(2) 지인의 소개로

이전에는 복지관을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과 지인의 추천으로 복지관의 공동육아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지인들의 설득과 권유로 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는 **옆집 지인소개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독박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 아는 사람도 많아진 거 같아요. <사례 E>

저는 **조리원 동기친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까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례 B>

아기 다니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있는 친구가 시작을 했다고 해서 소개 받아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례 H>

출산 후 엄마들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엄마들 몇 명이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례 J>

(3) 스스로 알아보기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육아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던 과정 중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신청하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그냥 제가 공동육아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복지관에 공동육아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사례 C>

어린이집을 당분간 보낼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공동 품앗이가 있을까 찾아보고는 이제 **복지관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례 K>

저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치료센터도 찾아보고 맘카페도 찾아보고 하다가 공동육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공동육아를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다보니까 삼전복지관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를 걸고 복지사님과 통화하게 돼서 대기하다가 왔어요. <사례 G>

2)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점과 바라는 점은 크게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과 자기 자신의 답답한 생활에 대한 변화와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큰 기대 없이 단순한 친목이나 모임으로 생각하고 온 참여자도 있었다.

(1) 우리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동육아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많은 기대, 다양한 기대감 갖고 있었던 참여자들이 많았다. 특히 집안에서 엄마와만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며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도 키워주고 싶은 엄마들의 욕구가 컸다. 보육기관이나 다른 세상으로 나가기 전 안전하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공간으로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자녀 발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통찰력도 필요했기에 공동육아 사업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제가 예전에 책 읽고 독후 활동하는 그런 거를 모임을 했었어요. 그... 그때 되게 이런 걸 하는 게 참 좋구나...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있었던 상태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 사회성도 키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사례 D>

애들 저희 아이는 이제 외동이니까 외로울 수 있으니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사례 C>

개인적으로는 제 딸아이가 워낙 내향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엄마와 딸 둘이서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처럼 단절된 사회 안에서만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어... 이런 내향적 기질의 아이를 케어하면서 알게 된 것이 먼저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는 조금 규모로 소그룹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면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걸 기대했죠.** <사례 I>

그 엄마랑 아이랑 너무 가깝고 뭐 두텁고 애똥한 관계 형성도 좋지만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래친구랑**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또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 **또래친구를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너무 좋았죠. <사례 I>

내향적인 내성적인 것도 있고 많고 좀 겁이 많아서 어... 사람에게 대해서 관찰을 좀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아이고 그다음에 표현을 잘 안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면 이제 어, 아무한테도 케어를 받지 못할 거 같고... **아이한테 이제 낯선 공간을 데리고 가면은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자주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도 자주 가줘야지 아이가 편안해한다는 걸 그런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일단 아예 보낼 생각을 안했고 품앗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엄마도 같이 함께 하면서 하면 아이가 적응을 하는 거라든가 이렇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례 K>

애기가 좀 발달이 많이 느렸어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고 하다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손 뭉 친구들을 때리고 이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너무 많이 됐고 여기저기 치료센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도 많이 했어요. 맘카페도 찾아보고 비슷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라고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여기 공동육아를 알고 오게 됐어요. **보육기관 말고 제가 개입해서 행동교정도 해주고 싶었고 비슷한 또래 애들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보고 싶었고...**<사례 G>

(2)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소위 독박육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육아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 집안 일에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하루 종일 아이와 둘이 있는 삶은 너무 답답했다.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컸기에 친구를 만들고 싶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었다.

육아를 하다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전 그 외로움을 같이 나누고자 공동육아를 찾게 됐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육아를 힘을 얻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공동육아를 이렇게 찾아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 A>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자 집에 탁 틀어박혀서 아이와 둘만 있는 상황에 1년정도 가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아이지만 제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신청을 한 케이스예요. <사례 L>

저한테 변화는 아무래도 조금 조금 약간 **우울하기보다는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 때였는데요. 그래도 좀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싶다는 게 좀 많았었어요.** <사례 E>

원래 이렇게 엄마들끼리도 만나면 아무래도 **육아적으로도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그 부분이 가장 동기가 컸던 거 같습니다.** <사례 J>

(3) 품앗이 육아와 친구사귀기

아이를 위한 특별한 도움이 아니더라도 함께 공부하고 육아에 정보를 나누고 싶어 하는 동지를 찾고 싶었다. 엄마들이 모여 뭔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새로움을 꿈꾸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아이가 더 많이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혼자 집에서 육아를 하고 이려면 이제 좀 더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차라리 **밖에 나가거나 같이 모여서 하면은 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 게 훨씬 육아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꼭 굳이 보육센터로 간다던지 이런 게 아닌 그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례 J>

아이들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한계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하면 좀 더 하나라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례 C>

(4) 큰 기대는 없지만 친목도 필요해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 이유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임을 통해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

기대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없고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듣기로는 어,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친목. 그니까 엄마들과의 친목형성. 이런 거가 주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그 정도의 기대?까지는 했던 거 같아요.** <사례 B>

3) 변화와 성장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삶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성장에까지 공동육아사업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1)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은 공동육아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경험하는 게 많아졌다. 공동육아모임에서의 놀이 활동과 친구 사귀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기술도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둘이만 집에서 생활하던 것 보다는 훨씬 활기를 찾게 되었다. 어느덧 친구를 기다리며 복지관에 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육기관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잘 적응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임은 아이들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준 디딤돌이 된 것이었다.

이제 공동육아로 지내다보니까 친목형성 이상으로 **아이들도 친구도 생기고 이제 배우고 경험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이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례 C>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적응을 해줬어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저는 이 공동육아의 힘이 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요즘처럼 뭔가 어, 뭔가 개인화된 이런 일상이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잠깐 스치고 만나고 가는 그런 인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주일에 두 시간이지만 아는 언니를 만난다. 뭐 아는 동생을 만난다. 이런 차원의 그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고** <사례 I>

기대했던 거보다 더 많이 또 애들도 정말 여기 가서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애들도 정말 친해지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걸 보면서 어... 우리가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례 A>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좀 거리도 있고 하니까 보통 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삼전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그래도 근처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매주마다 만나서 애들이 그래도 동일한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소통하고 친구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았고** <사례 H>

그 어린이집 친구들과 완전히 이제 다른 동네에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세계를 또 볼 수 있고 그 한곳에만 아마 갇혀있었던 거 같은데...이제 매시간 여기서 뭐 뭐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만들고 뭐 놀이도 하고 막 이려다보니까 언제 가냐고 어, 이제 아파서 못 가게 못 가게 되는 날이 있으면 계속 기다려하고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사례 D>

공동육아를 하면서 친구들이 어쨌든 또 꾸준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계속 같은 친구들을. **항상 아이가 주말이 되면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복지관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고 또 친구들 이름 말하면은 내일 친구들을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친구들 이름 말하면서. 그리고 또 활동하다보면 이제 친구들이 못 올 때에는 아, 오늘은 누가 안와서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니까 **아이 이제 사회성 발달이나 사교성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사례 B>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며 발달하고 있었는데 엄마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 의논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었고 형이나 누나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엄마들끼리도 소통하고 또 **애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니까 그것도 소통하는 것도 나도 배우게 되고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어... 다른 것도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만 어, 공동육아도 제가 공부하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소통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사례 A>

또 **애들이 신기한 게 이제 형이나 누나들을 보면서 따라 하기도 하고 요즘엔 코로나라 그 게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례 C>

(2) 엄마들의 역량강화

① 심리·정서적 안정감

참여자들에게 육아는 참으로 고되고 외로운 일이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다. 다행히도 공동육아 사업과 모임을 통해 속내를 털어놓을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게 되면서 점차 여유를 찾게 되었다. 아이들을 매개로 한 대화와 활동계획, 계속되는 유대감을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웃게 되고 우울감을 떨쳐버리면서 육아는 물론 삶의 여유들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었다.

제가 그 외로움과 그런 걸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제가 좀 힘들 때 같은 어머님 같은 엄마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어... **제 삶이 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고 조금 더 육아에 힘을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A〉

그리고 저한테 변화는 아무래도 약간 우울하기보다는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 때였는데요. 그래도 좀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 스트레스가 해소된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사례 E〉

② 끈끈한 관계형성

참여자들은 어느 새 자신의 아이만이 아닌 다른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고민을 나누는 동지들이 되어 갔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갔다.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행복한 일이었다.

네, 뭐 저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다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 저희 팀들도 줌으로 저희들끼리 대화라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애들 재워놓고 그래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관계적인 면에서도 아, 이 사람들이랑 이런 것도 소통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끈끈함 그런 것들이 생겨서 좋은 거 같아요. <사례 F>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에서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시댁이나 친척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뭐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잠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 이제 같이 팀 하는 엄마들이 좀 봐주기도 했거든요. 한 두 시간정도는. 그래서 정말 잠깐 맡기고 뭐 복지관에서 놀 때 엄마 잠깐 갔다 올게. 했을 때 맡기고 좀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사례 D>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진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요즘은 어... 어머니들이 뭐 회의 같은 거 있지 않은 한은 같은 반 엄마들도 전화번호 잘 모르거든요. 이제 여기는 엄마들이 저한테는 제일 우리 애랑 그리고 같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됐던 거 같아요. <사례 H>

품앗이가 약간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아니고 저희가 뭐 제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의무감 때문에도 모이는 게 있어서 같이 모이는 그 팀원들이 어, 좀 더 뭐 협동하고 또 상호 교환하는 것도 있어서 어른들 엄마들도 이것을 통해서 어, 뭐 배워가는 것도 있고... <사례 K>

그래서 너무 진짜 여기 도움 받은 게 많고 되게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여기 엄마들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만나게 되면서. 그러다가 1년이 지나다보니까 이제 서로 얘기할 게 많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하고 그러다보니까 아,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우리 아이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다른 아이 커가는 모습도 봐줄만한 그런 서로 관계가 됐거든요. 그 인연을 만난 게 되게 지금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 같아요. <사례 D>

③ 지혜와 용기를 품다

참여자들은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이나 관계형성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육아에 있어서 힘을 얻고 힘을 내는 관찬은 엄마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적인 부분은 변화가 사실은 이제 아이가 동갑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래를 만나지 못하니까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만 많이 검색을 했고 잘 비교가 안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만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아이 행동도 보고 다른 아이 행동도 보고 뭐 이 발달에는 이게 맞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정보적인 거. 육아 이제 이 제품이 좋더라. 간식은 이게 좋더라. 그런 거를 많이... 그런 정보를 진짜 많이 얻게 되었었고요.** <사례 E>

사실 기대와 동시에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던 게 엄마로서 처음 일하다 보니까 엄마와 다른 엄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처음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저도 용기가 엄마도 같이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두려움이 같이 왔던 거 같아요. **일단 이걸 시작하면서 나도 용기를 조금 내었죠.** <사례 I>

네. 이게 사실 제가 솔직히 이런 영아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잘 몰랐는데 이 공동육아하면서 아, 뭐가 아이들한테 좋고 다음 주에는 이런 활동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이런 활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찾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연장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저한테 좋은 변화인거 같아요. <사례 B>

뭐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또 우리 애를 알아가고 또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좋았고 또 제가 또 같은 동료어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또 **육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례 A>

④ 성숙한 인식으로 전환

참여자들은 복지관의 작은 모임을 통해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아이의 눈 속에 비친 우리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엄마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좋은 시민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위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대견하고 또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기여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저는 공동육아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참여를 하면서도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좀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었네 라고 인식이 바뀌어 갔던 거 같아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라야 그 사회에서 잘 성장해서 사회인들이 모이면 또 건강한 사회가 되는거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도 단절도 외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육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 가닥의 끈처럼 뭔가 사회적 역할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I>

저는 다른 관계도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그냥 저희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니까 팀원들과 하는 것도 매주하는 것도 공동육아지만 누구를 만나던지 뭐 그냥 뭐 어린이집 친구든 뭐 아니면 제 친구들의 아이들이던 같이 만나던지 이제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공동육아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된 거 같거든요. <사례 J>

지금 현재는 공동육아품앗이에 해당되는 그룹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주민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속해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엄마로서 육아를 하면서 조금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 조금 확장 복지관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확장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로서 내 자녀만 케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엔 이 닿을 수 있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확장했다.** <사례 I>

(3) 가족들의 참여, 지지와 협조

엄마들 뿐 아니라 아버들이 공동육아의 어느 한부분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게 되었다. 집에서는 해볼 수 없는 다양한 내용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빠와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한 첫 발자국으로 아버들은 가정에서의 보육 역시 공동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부모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 복지관에서 보내준 키트로 손주들과 놀이는 하는 부모님들의 보람 있어 하는 모습도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즐거움이다. 가족의 협조와지지, 관심을 통해 이 사업에 아이들과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당당한 사업의 주체자가 되어갔다. 가

족 간의 대화가 늘고 유대감이 높아진 것은 공동육아 사업을 통해 가족기능과 부모들의 건강한 역할 세우기의 기대효과이기도 했다.

일단 남편한테 이걸 한다고 하니깐 좋아했어요. 뭐 집에만 있다가 이제 어디 나간다고 하니깐 그래서 어, 잘해봐라 그러면서 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저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아이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니까 다른 애는 이런데 우리 애는 이래. 애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또 우리 애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애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좀 어... 애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공동육아를 함으로서 또 가서 애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얘기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궁금해 하면서 아이를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 같아요.** <사례 A>

중간 중간 저희가 그 복지사님께서 막 저희 아이랑 저랑 하는 놀이관찰 같은 것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게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건 잘하고 있고 나의 문제점이 이거래... 이런 식으로 얘길 하니깐 이런 건 정말 이제 저희가 실천들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 꼭 전문가가 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더니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 참여 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와서 다른 그룹친구들도 만나고 아버님들도 보고 이러면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복지관 간다고 하면은 신랑이 엄청 좋아하고 <사례 B>

이제 저희 아이가 잘 크고 있다. 사실 이런 의구심이 항상 들잖아요.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보고 우리 아이도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좀 많이 안심을 한 거 같아요.** <사례 B>

어떻게 애가 다른 아이랑 있을 때 관계를 맺는지를 모르는데, **복지관이 거의 유일한 통로였었는데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조금 파악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 어른들하고 있을 때 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을 때 하는 행동이랑 또래 친구들하고와의 관계가 또 다르잖아요. **저희부모의 성향을 아이가 잘 닮았다는 거를 보고 아, 그래서 처음에 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좀 안심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공동육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엔 더군다나 어디 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통로였어요. <사례 C>

저희 남편이 다정다감하지 않았고 또 그때는 아팠는데 아빠참여 활동하면서 그 갔다 오고 나서 뭐 사진도 카톡에 자기 사진 그거 활동했던 거, 아이랑 둘이서 했던 거 그런 것도 걸 어놓고 뭐 이렇게 이거 선물 받아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내색은 안했지만 되게 좋아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아, 주말에 또 가야되나. 이렇게 약간 내심 생각은 했었을 거 같은데 또 내색은 못하고 근데 막상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무튼 그 처음하고 나니까 운동회 같은 거 해줘가지고 그때 강당에서 처음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다음에 또 가라고 하니까 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꽤 좋아. 아, 그래도 재밌는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례 D>

남편하고는요..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고 주말 말고는 평일에는 특히 더한데, 맞벌이 하고 집에만 있다보면 별로 할 이야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주중에 이런 활동을 하고 어떤 친구들을 어떻게 어떤 친구들은 뭐 이런 활동을 하더라 우리 애는 어떻게 그 러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대화거리 그게 많아진 거 같아요. 애깃거리가...<사례 G>

4) 성공의 핵심요인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 낸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이의 변화, 엄마들의 변화, 가족들의 변화가 가장 컸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살펴 수 있는 성공적인 핵심요인을 찾아보았다.

(1) 엄마들의 주체적 역할

이 모임은 공동육아, 즉 참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자 중심의 사업이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처럼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받아오는 형식이 아닌 공동육아의 핵심인 참여자 모두가 사업제안을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귀찮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이나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교구를 손수 만들거나 일일이 아이들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내용을 하나 하나 만들어갔다. 또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을 택해 역할을 정하고 업무를 나누며 계획서

와 평가서를 직접 기록하며 전문가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직접 사업을 일구어 갔다. 누구는 기획하고 누구는 보고서를 쓰고, 또 누구를 팀을 리드하면서 각자의 몫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나누고 수행하였다. 이렇게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공동육아 사업의 핵심이자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장 좋은 효과로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은 공동육아모임은 **엄마가 공부를 하고 엄마가 가르치게 되니까 엄마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재료를 다 선생님이 준비해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의 통제성이 좀 강하고 조금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제가 고르긴 하지만 선생님 중심이잖아요. 프로그램이 거긴 많지만 항상 보면은 프로그램이 다 비슷해요. 뭐 낙엽가지고 노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 다른 과목이어도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사례 B>

이게 또 모임을 하다보면 그 어머님들도 능력과 성향이 달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주로 짜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계획서나 그 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이거를 구성을 해서 주면 이거를 같이 따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막 부담은 안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우셔도 또 항상 팀을 지도하는 또 엄마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팀 내에서 역할을 충분히 분담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사례 1>

(2)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과 강한 연대의식

아이를 통해 만나게 된 모임이지만 소통하고 협력하고 돕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웃과 주민으로서 발생하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엄마라는 강한 연대의식은 무엇보다 이 사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공동육아사업은 문화센터와 달리 돈을 내고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모임, 따뜻한 모임,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임, 우리가 원하는 내 지역 장소에서 만나는 모임,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모임, 위로와 공감의 공존하는 모임이었다. 그러한 모임 속에서 각자는 주인공이 되어 갔고 우리 동네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과 서로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으로 뭉쳐갔다. 이러한 정신적 유대감은 사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 그냥 내가 배우러 가는 거고 **공동육아는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공감을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혀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사례 L〉

공동육아는 다르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엄마들끼리 뭔가 되게 의지가 되고 그니까 내 친구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저희는 진짜 좋은 게 회칙 같은 거 없어도 뭔가 자발적으로 다들 엄마들이 그냥 여기 오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고 엄마들도 뭔가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어려운 엄마들이 없었고 **뭔가 협력하려고 하고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고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운이 좋게 되게 친구보다도 저 좋은 엄마들을 얻은 거 같아서 뭐랄까.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다고 해야 되나.**〈사례 D〉

둘째 출산할 때 제가 산후조리 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첫째를 데리고 복지관에 갔는데 되게 모르는 엄마들인데도 저희 아들이랑 엄마한테 밥도 시켜주고 그랬다고. 네. 아이는 초면 안면식도 없고.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님 얼굴이며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진짜 동네 시골 마을에 뭐 있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되게 애착을 서로 갖고...** 엄마가 산후 조리했는데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첫째 데려왔구나.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아니까 뭐 식사 같이 하실래요? 약간 그렇게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따뜻 엄청 따뜻하다. 저희 어머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복지관 간다하면 되게 좋아하고. 뭐 아이도 말할 것도 없고** 〈사례 B〉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그니까 애들이 이제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육아를 하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애들이 만나기 때문에 또 그 공동육아 공간 외에도 놀이터에서도 만나고 하다보니까는 어, 지속적인 만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끝나고 뭐 매주 본다고 해도 그때 끝나는 거고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남을 할 수 있고 길면 1년 2년 뭐 이사 가기 전까지나 활동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뭐** 〈사례 K〉

사실. 그리고 어... 뭐 여기 가기 전에는 사실 저는 아이를 문화센터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거기서 만난 다른 이제 엄마들이랑도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모임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내다보니까 **친목형성 이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경험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이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례 F〉

문화센터라는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냥 선택해서 주제에 따라 선택하는 거라면 공동육아는 엄마들이 어쨌든 간에 고민을 안 할 순 없거든요.. 많은 놀이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공간상 가능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시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거고요... 고민을 함께 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나눠서 이게 어때요 말했을 때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례 H>

그래서 저는 그게 차이점을 둔다면 놀이터를 중심으로 좀 바뀌지 않나. 문화센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컨디션에 상관없이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아이한테 맞출 수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데서 만나는 거보다는 각자 사는 곳에서 어느 센터에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약간 이 이 공동육아 만이가지는 그 좋은 장점이 **그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어떤 그 놀이터나 장소 우리가 아는 원하는 편한 장소 뭐 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고 그게 제일 큰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C>

(3) 온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활용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포함하여 기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통한 믿음은 가족의 참여와 관심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한다. 좋은 사업에 우리아이와 참여하고 있다는 가족들의 확신은 지속적이고 적극적 참여의 동력이 되었다. 직접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공간과 행사를 경험하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의 모습과 역할이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었을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아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고 가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가족단위의 재미있는 사업들이 한몫을 했다. 개별 가정에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내용이나 장소선택,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공동육아 사업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했다.

특히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에는 사업기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통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한다. 직접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공간과 행사를 경험하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의 모습과 역할이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가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아이를 봐야하는데 꼭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야겠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쨌든 이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더니 다음번에 이제 부탁할 때는 00이 거기 가서 친구들보니까 좋아하고 본인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괜찮다. 또 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또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공동육아가 좀 이루어졌어요. <사례 B>

우리 남편은 평상시 항상 주말되면 누워있었는데, 이제 복지관에 가는 날. 사실 몇 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분기에 한번인가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아이랑 둘만 딱 데리고 가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아빠들하고 본인이 이제 어떤 위치지 좀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놀아야 되는구나. 나는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약간 느끼고 오는 거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만족스러웠던 거 같아요. <사례 C>

크리스마스 때 아이랑 가족들이 케이크 만들기 한거 너무 좋아했어요. 숲체험도 좋았고요. 남편은 그냥 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는 온 가족이 같이 했던 거 자체가 너무 좋고 평소에 밖에서 뛰어놀고 그런 건 있었어도 아기가 하계 아빠가 케이크를 같이 만들거나 그런 건 집에서 못하잖아요. <사례 H>

여기에 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이 품고 있는 의미는 컸다. 복지관에서 시작되었고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충분히 지원과 안내받으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아이를 잘 키워낸다는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것 같아 보였다. 모이는 장소이며, 아이들의 자유로움과 활발함을 품고 있던 복지관의 공간은 너무나 소중했다. 그랬기에 아이들은 충분히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복지관에서 해주는 행사 분기별로 행사들이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거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어... 이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또 이끌어어나가는 것도 어렵고 따라오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끊긴다고 하면은 너무 슬플 거 같아요. <사례 D>

복지사님이 어떤 놀이가 있다 글들을 조금 더 요즘에 언택트 되면서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도 이제 접근하기에 애기엄만데도 잘 모르고 복지사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뒤쪽에 솔직히 저는 저보다 복지사님이 알려주신 놀이로 잘 놀았던 거 같아요. 키트도 그렇고 <사례 H>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이들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데 정말 어디 가서 모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례 B>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활동을 도움을 주시는 복지사님이랑 그다음에 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사례 J>

(4) 코로나 상황 속 맞춤형 지원방식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에 걸쳐 몰아닥친 위기는 공동육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공동육아 사업은 아이들과 엄마들, 어린 동생까지 말 그대로 단체가 모여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거기에 면역력도 취약한 아이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은 어디서든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육아 사업 지원이 필요했고 복지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육아를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별키트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 활동에 대한 제시를 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화 할 수 있었다.

주말에 친정에 가게 되면 이제 키트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저희엄마랑 손녀딸이랑 같이 해요. 만두 같은 거. 그거 키트 신청해놓은 거 만들고 막 하면은 엄마가 처음에는 아, 또 이런 걸 왜 가져와서 귀찮게 날 만드냐. 그러더니 또 결국은 알아서 더 잘해주세요. 저보다 훨씬 더.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해주고 좋다. 진짜 세상 좋아졌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례 D>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제 선정이 항상 고민되거든요. 근데 힘들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주문까지 해서 나눠주셔서 안 해 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례 J>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복지관에서 키드활동이나 지원금으로 각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그냥 코로나 때도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에서 따로 소수로 만났고요.. 키트 활동을 통해 미술활동, 물감 이런 걸 나누기도 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나갔어요. <사례 G>

개별 가족이 키트나 선물방식으로 이 사업을 지속화 할 수 있었다면 엄마들의 모임과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자 공간이었다. 부동부동 모임에서는 온라인 밴드를 통해 팀 간 활동정보를 공유하도록 했고 그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며 사업을 이어 나갔다.

단톡방이 있으니 안부를 묻거나 다음 달에 이제 뭐할까 이러면서 이벤트 활동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례 J>

복지관 측에서 밴드라는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활동하는 팀 간에 어떤 계획을 한다던지만 공유했다면 새롭게 시도됐던 것은 어쨌든 다른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활동이 좋았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가 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건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례 I>

5) 부동부동 사업이 지속되기 위한 제안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을 포함하여 공동육아 사업 자체에 대한 제안과 이후 바라는 바를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참여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조건, 복지관등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지역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

공동육아 사업이 문화센터나 학원과 달랐던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주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자들간의 자발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소통과 마음을 맞추는 일은 필수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중에는 참여자들의 의지와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 프로그램에 주인이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각하고 그러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런 걸 미리 규칙으로 정하고 서로가 조심해야 할 것,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례 D>

어,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일단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뭐 좀 배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좀 애들 보면서 그런 시간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5명인데 한 3~4명 정도만 이렇게 나머지 인원까지 다 끌고 갈 수가 없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게 되게 공동육아를 하면서 중요한 거 같은데 어... 이제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하니깐 근데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다 극복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거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좀 팀 내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었던 거 같아요. <사례 A>

출석, 지각에 대한 기준은 세우고 **적어도 맞추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사례 C>

특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좀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그런 거 때문인데, 그 **어떻게 문제가 생겼든 간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풀고 갈 수 있고 그 자기도 해명을 하고 그 분도 상대방의 오해산 것도 본인도 들어보고 해야 해야지 이게 풀릴 거 같더라고요. <사례 D>

(2)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

두 번째의 바람은 운영의 주체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요청이다. 예를 들면 모임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 참여자를 발굴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공간마련 등의 욕구들이 나타났다.

복지관 차원에서 공동육아 회칙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출석이나 이런것도 너무 자율적인 것보다는 회칙에 따라 운영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했어요. <사례 D>

이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다양한 성격의 엄마들이 오고 거기다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이 만나다보니까 **이게 솔직히 누구의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조금 힘들었던 거 같고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인원이 많았어요. 정말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게 되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I>

저는 **홍보가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접근성이 약한 게 있어요. 소식지도 좀 홍보를 더 하구요. 맘카페에 몇 번 올리긴 했는데 밴드가 되었든 뭐든 광고를 좀 하면 좋겠어요.<사례 C>

후배 **공동육아 팀을 위해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사례 B>

또한 공동육아의 사업이니 만큼 양육자에게 양육 활동자료나 육아정보를 지원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의 욕구가 높았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지만 이 모든 일을 엄마들이 참여, 제작 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 엄마들을 위한 교육 역시 필요했고 추가적으로 소통이나 인간관계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엄마 역할도 처음, 공동육아 사업도 처음이었기에 전문가의 교육이나 컨설팅이 있었다면 조금 더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기도 했다.

아무래도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게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니까 어... 뭐 그걸 좀 대화를 많이 나눠서 내 입장에서는 이랬는데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오해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풀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거를 같이 푸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 F>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그때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고 엄마라서 몰라서 그랬는데 그냥 조금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그냥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싸워가지고 어떤 위치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위해 공부를 좀 더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BS다큐 놀이의 힘이란 놀이의 반란 이렇게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걸 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 공동육아 전에 또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겠지만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정보도 얻고, 협동놀이에 대한 조언이나 강연시간도 필요한 거 같아요. <사례 D>

공동육아에 대한 교육, 놀이법, 체험에 대한 거 심리적 지원에 대한 부모교육이 풍부해지면 더 알차게 운영될 것 같아요. <사례 B>

(3)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바

공동육아의 사업은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이 또한 시작될 수도 없으며 유지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육아 사업에 대해 양육자에게 활동자료나 정보를 지원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모든 아동의 사업에서는 공간이 중요하며 이는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공간마련과 공동육아 사업 운영에 대한 욕구가 존재했다.

지역사회 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 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계약이 크다보니 공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고 비용부담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사례 C>

그냥 빈 강당에서 놀아도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냥 거기서 까르르 웃고 막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그냥 놀이터 공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니까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그런 활동들도 알아봐서 또 해야 되고 하면 되게,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 드는 생각은 아이들끼리 만나기만 해줘도 다양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되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에 있어야지요. <사례 A>

공동육아 사업 중에 텃밭이라든가 그런거 도전에 볼까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잘 제공되어도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육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F>

다

삼전복지관 실무자 이야기

처음 부동산 사업 사업을 기획할 당시 본 사업의 핵심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 중에서도 영유아 양육자를 모아 독박육아의 상황, 육아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에 만연한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조직화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조직화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양육자들의 모임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생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기에 지속적으로 양육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로 공동육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사업적 구조가 크고, 여러 활동들이 병행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실무자가 지난 3년 간 운영과정에서 느낀 개인적인 고민, 성과, 그리고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려 한다.

“실무자의 고민”

부동산 사업은 내·외부적으로 탄탄한 수퍼비전을 통해 실무자 고민에 대한 여러 조언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기에 수정·보완 과정 속에서 계획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운영될 수 있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무자가 크게 느꼈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받은 수퍼비전을 함께 나눈다.

1) 양육자 대상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1)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공동육아 그룹 조직 혹은 기존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 역량강화라는 진행방식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2018년의 경우 이유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매개로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프로그램을 매개로 품앗이 팀에 참여하는 양육자는 많지 않았음.** 이에 차기년도에도 프로그램을 매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됨. 프로그램을 매개로 진행하는 것이 담당'er의 에너지 투입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면 프로그램의 경우 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친목도모 등의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품앗이 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될 경우 품앗이 활동 참여를 문화센터 이용하는 것과 같이 **단순 프로그램 참여자로 스스로 역할을 인식하거나 조직의 주체성 향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됨.**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다. 자녀 월령이 어린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수 있기에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 즐거움을 주어야 하며 **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나중에 나도 저처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두 돌 이상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활동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기에 **그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2) 공동육아 활동 목표, 방향성에 대한 양육자와 기관이 각기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담당자는 양육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 복지관과 무엇인가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역할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사업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음.

공동육아참여자들은 처음부터 공동육아 활동만 생각하고 왔는데, 담당자가 지역사회활동이라는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관계망을 만들어드리고 그 이후 조직적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움.

→ 이러한 고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들의 욕구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나 담당자가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 된 것 일수도 있다. 그동안 담당자가 지원한 결과가 현재와 같은 것일 수 있기에 현재가 맞고, 잘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정말 아이를 키우다보니 혼자 고군분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서 자신의 일을 하기 힘들고 우울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 활동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어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좋다는 점도 있을 수 있기에 **양육자들에게 '우리는 애초에 이러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혹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냐' 혹은 '어떤 방식의 모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음.** 그리고 이번에 3차년도 모임을 할 때는 초반에 담당자가 얘기한 것과 같이, 보다 **분명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해 운영하고 나중에 이 집단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 (3) 계획한 활동은 모두 진행했지만 연차별 흐름과 사업적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2차년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획한 활동은 모두 진행하였지만 **담당자가 의도했던 것과 실제로 참여자들이 보인 반응과 변화가 부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었음**. 본 사업은 처음부터 3차년을 계획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1차년도부터 모델화 제시라는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하였음. 그러나 담당자가 3차년을 준비하면서 보니 계획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듦.

→ 현실적인 고민이며 오히려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 공동육아의 경우 지역에서 공동육아까지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도전적인 물음일 수 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 정책적 함의를 발견한 것 일 수 있다**. 품앗이, 공동육아가 과연 지속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하기에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기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키움센터 등 사회적 돌봄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품앗이의 욕구가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것들을 실무자의 판단, 참여자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연령층의 아동, 즉 만 2·3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 (1) 기관별 연계희망 내용 및 수준이 상이한 경우 네트워크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2018년 10월 현재 2018년 협약기관 및 2019년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사전 연락 및 간담회 진행을 통해 차기년도 각 기관별 연계 방향을 모색함. 관련하여 **기관별 연계를 희망하는 내용 및 수준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에 어떻게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됨**.

→ 연계의 경우 의견교류, 정보교류, 욕구파악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개별기관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을 함께하여 전체 참여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유명 강사 섭외, 실내 놀이터 대관 등 혼자하기 어렵고 같이하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원 활동 시 우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영유아 양육자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원 시 현재 본 기관
**공동육아 품앗이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지속적 교류를 위해 복지관에서 어떤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하는지** 고민됨.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품앗이로 모일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단회기성 보다는 한 달
 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품앗이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꼭 복지관을 주축으로 공동육아를 꾸리
 기보다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나 평생학습, 강사지원 사업 등 엄마들끼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
 으면 한다.

“예상치 못한 성과 혹은 긍정적 측면”

계획한 성과목표는 아니지만, 활동수행 과정에서 실무자가 느낀 예상치 못한 성과 혹은 기대 이상의 사업
 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육자들의 활동반경 확대(다양한 주민모임 참여)

가정에서 홀로 육아를 하던 양육자, 혹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만 엄마들 간 관계가 전혀 없었던 양육
 자들은 공동육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육아를 통해 어린자녀를
 돌보는 양육부담이 점차 감소되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생긴 양육자들은 자녀 이외에 자신을 위한 활동들
 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실무자는 복지관 내 여러 성인특강을 안내하며 양육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공동육아에 참여한 몇몇 양육자는 우리 기관에서 진행한 특강에 참여
 한 이후 그리다, 북트레일러, 나오지기 등 여러 주민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속에서 활동주제와 맞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 재취업의 원동력

재취업에 성공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지만 활
 동 사례들 중 ‘공동육아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다른 엄마들한테도 이런 좋은 걸 더 알리고, 전공도 살려

서 뭔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서 보육반장 활동을 했던 양육자가 이후, 본 경험으로 재취업을 하였다. 또 다른 양육자 중에는 공동육아 활동을 하면서 생긴 관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 상담을 잘한다.' 라는 자신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해 상담사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출산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양육자들은 공동육아 활동으로 자신과 같은 고민, 어려움을 가진 양육자들을 만나 힘든 시기를 겪어냈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자 새로운 출발,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출산, 취업 후에도 이어지는 끈끈한 관계

공동육아 모임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된 팀 중 여러 그룹원들이 둘째 출산으로 휴식기를 갖고, 이후 다시 합류하여 활동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실제 사과나무팀은 3가족 중 2가족이 둘째를 출산하여 첫째 자녀를 중심으로 시작한 공동육아가 둘째까지 확대되면서 현재 총 5명의 자녀들이 활동 중이다. 또한, 신육마팀은 5명 중 3명의 양육자가 재취업을 하였지만 주 1회는 늦은 시간이라도 만남을 가져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사로 인해 활동하지 못함에 아쉬워하는 양육자도 다수 있다.

어린 영유아 자녀와 함께 시작한 공동육아 일수록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자의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공동육아 활동으로 이어진 끈끈한 관계는 그들의 활동 의지를 높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

4) 타 기관 대상 공동육아 사업운영 노하우 전수

2018년 부동부동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사업을 시작하던 첫 해에도 우리기관은 송파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유일하게 영유아 양육자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었으며 실제 복지관이라는 세팅에서 공동육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동육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준비하는 기관들이 생겨 기관방문과 유선연락으로 사업적 경험을 궁금해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 사업이 보다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실무용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3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실무자로서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만나는 주민들을 잘 공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함께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막연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내가 만나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묻고, 고민은 나누며 목적에 맞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될까?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출발했던 2018년을 지나 어느덧 2021년이 되었고, 되돌아보니 그 과정에 함께 한 사람들, 진행된 활동들, 그리고 그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유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더군다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았을 뿐더러 공동육아로 비춰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육아 사업이 갖는 의미와 그 차별성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막연함도 컸다.

그러나 지난 경험들 속에서 느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와 환경,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의 모습은 달라져도 함께 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결국 이러한 양육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부동부동 사업과 같은 형식의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공동체 의식 결여, 이웃 간 단절 등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을 사람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육아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양육자들을 모을 수 있는 공동육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사업자문 교수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마을과 함께 키우는 일

자문교수 김진숙(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육아 생태계 조성사업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함께 한 시간은 아이들만 같이 키운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성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의 가족발달단계 이론에서조차 ‘출산과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는 부모,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3세대가 밀착된 관계를 보인다, 밀착된 관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손이 필요한 시기에, 혼자 아이의 양육을 감내하는 것은 처음 엄마가 된 이들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혹은 ‘덜 힘들게’ 키울 수 있을까.....이런 고민은 늘 있어왔지요.

70년대 빈민탁아운동을 배경으로 90년대부터 ‘공동육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육아는 양육과 돌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운동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 공동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공동육아를 그저 부러워하며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보통 엄마들의 ‘함께 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삼전복지관의 공동육아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끼리 복지관 안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만, 육아에 있어 결정적일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공감했고, 후배맘들의 경력단절

이나 독박육아가 아쉬워 아이들이 열린 크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기도 했으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삼전복지관 선생님들의 출산과 자녀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현실화되는 현장에 참여하고,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천을 개선하고자 고민하는 지점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잘 하고, 참여 부모들을 도울 것인지 늘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참 즐겁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문교수보다는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자세로 임했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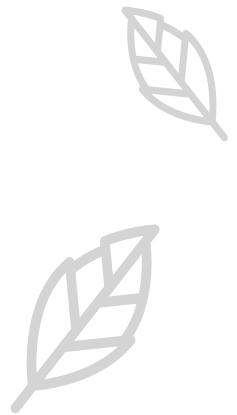
공동육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욕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공동육아에 열심히던 분들도 이사, 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졌고 영유아시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부모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지면서 모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동육아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는 것이었다면 모임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모임을 잘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 3년의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일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생태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소멸하듯이, 공동육아 생태계 안에서도 모임 하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또다른 모임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며 경험과 역사가 쌓이는 과정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는 아이들의 일생 초반이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기억들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4. 변화와 기대



가 변화 : 실무자 및 참여자 사례를 통해 본 사업성과

1) 실무자가 생각하는 부동부동 사업성과

송파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최초, 영유아 양육자 대상 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송파구에는 총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각 복지관은 지역적 특성 및 주민육구 기반의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우리기관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손꼽자면 바로 영유아 양육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부동'이다.

영유아 사업의 경우, 공간 확보 또한 중요한 환경요인이기에 단 기간 내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 최초로 부동부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지역 내 주민만나기 활동으로 모아진 여러 의견을 모아 기관 내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빠르게 조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기관에서는 송파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최초, 영유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영유아 사업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강사를 연계한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들의 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는 계기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유아 사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제반활동을 펼쳤고 공동육아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타 구의 유선연락 및 기관 방문 등으로 영유아 사업의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최초라는 타이틀에 맞게 여러 유관기관이 영유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연계·협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함께 돌봄을 매개로 한 공동육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다.

기관이 위치한 삼전·석촌동은 30-40대 부부+자녀의 가족형태가 가장 두드러지며 영유아 및 학생인구와 양육자가 월등히 많은 지역 특성상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2017년 공동육아 사업의 시범적 운영 이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출산과 동시에 독박육아, 사회적 고립 및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다수의 양육자가 이미 맘카페로 소통하고 단발성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기에 우리 기관의 여러 교류활동에도 많은 양육자들이 참여했다. 이 중 육아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양육자들

을 대상으로 공동육아가 시작되었고 구조화된 형태로 육아를 함께 하고자 하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그룹간 만남 등으로 양육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함께 돌봄이 양육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관계형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성숙한 인식을 갖추게 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공동육아 활동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젊은 부부세대의 양육가구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 개개인이 겪고 있는 육아의 어려움 해소를 조직화로 시도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내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조직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지난 3년 간 운영해본 결과 대상층의 특성상 이사·출산·복직 등 상황적 변동도 크지만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와 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형태든 공동육아 활동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사업임을 확인한 점이 성과라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의 부동부동 사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탐색이라는 목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관 중심의 공동육아 형식에서 벗어난 여러 오픈된 형식의 모임주최 속 양육자 중심의 공동육아 활동으로 확장·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다.

부동부동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하는 육아공동체, 즉 주민중심의 공동육아 모임이 활성화이다. 이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 또한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동안 지역 내 영유아 사업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이 전무하였기에 1차년도에는 각 기관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며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기관들과의 만남으로 집약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확인하고, 공동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행동을 수행하였다. 각 기관의 유형과 사업적 특성이 달랐기에 네트워크로 인한 긍정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실무자 변동으로 인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에 3차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년도에는 영유아 양육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작은도서관 등 여러 기관들의 문을 두드려보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들과의 긍정적 합의와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참여자 사례로 보는 사업성과

공동육아,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 !



“... 이걸(품앗이) 통해서 실제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중략) 이게 상황을 예로 들자면 뭐 친구들한테 원래는 놀이터에서도 사람들은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크게 느낀게.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가 끝나고 여기 사무실에 올라오면서 애를 1층에 놔두고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애가 엄마 없이 혼자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여기와서 처음이었어요.”

-2018.08.21 상반기 간담회 회의록 발췌

2018년 공동육아 품앗이를 처음 시작한 권00 양육자는 당시 32개월 여아를 양육하고 있었다. 낮가림이 심했던 아이의 성향 탓에 유독 사람이 많으면 놀라서 엄마한테 떨어지려하지 않았던 아이. 그런 아이로 인해 엄마는 어린이집도 최대한 36개월 이후 늦게 보내고 싶다며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데 또래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필요했기에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공동육아. 그리고 어떻게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삼전복지관을 알게 되었다.

걱정과 고민으로 시작한 공동육아지만 활동이 지속될수록 조금씩 느껴지는 아이의 변화에 권00 양육자는 공동육아 품앗이가 자신에게는 ‘성장’ 이라고 말한다. 2018년 당시, 포토보이스 형식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키재기 판 아래 서있는 자녀사진을 가져온 권00 양육자는 공동육아는 엄마도 아이도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안에서 아이는 또래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조금씩 마음의 성장을 하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 덧붙여 친정도 멀고 시댁도 멀어 주변에 지인 한 명도 없고, 엄마라는 역할은 여행연습이 없기에 아는 것 없이 불안하고 모르는 것들로 두려움이 가득했던 권00 양육자. 비록 부족한 엄마이지만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만나러 온다는 느낌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공동육아 활동이 단순히 독박육아 현실에 처한 양육자 간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내향적 성향의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엄마가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그 안에서 함께 얘기하고 나누며 위안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동육아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원들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관계망 확대

2019년 2월, 공동육아 품앗이 지속화팀(새싹팀) 중 '알록달록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00 양육자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의 보육반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보육반장으로 처음 활동하게 된 정00 양육자는 '공동육아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다른 엄마들한테도 이런 좋은 걸 더 알리고, 전공도 살려서 뭔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보육반장이 관련 활동경험이 없거나 짧으면 안 뽑는데, 공동육아 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이셨고 이런 제 경험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덕분에 보육반장이란 걸 생각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하였다.

정00 양육자가 보육반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알록달록팀은 올해 보육반상회 참여하여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발의하였으며, 지역 내 출산가정과 영유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육아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 공동육아 품앗이 안내, 양육실태조사 참여권유 등 본 기관 조력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삼전복지관에서는 정00 양육자의 역할로 육아 커뮤니티공간 및 열린옷장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을 체감하였다. 또한, 보육반장 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된 타 지역의 공동육아 진행 사례, 기관방문 소감 등을 팀 안에서 나누며 알록달록팀의 안정적 유지를 이끌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알록달록팀 내 3명의 양육자는 오전시간을 활용해 지역사회활동에 목적을 둔 엄마모임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모임 간 만남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자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고 공동육아 첫 시작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양육자 다수가 기관 내 주민모임 활동을 시작하며 또 다른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육아를 하면 20개월까지 엄마와 자녀의 소통이 안되서 힘든 시기예요. 보통 아빠 없이 엄마랑 아이랑 있는 시간이 많아 사회에 단절된 느낌인데 품앗이가 이런 느낌을 많이 해소시켜주었어요.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들과 주로 나누었던 일상 얘기를 이제는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말하는 기쁨이 있어요.”

-3/20 알록달록팀 설명회 소감나누기 중 발췌

양육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 얘기를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말하는 기쁨을 갈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양육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를 통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과 엄마로서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나 사업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계획

1. 영유아 양육자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가 잦다.

공동육아는 단 기간에 참여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다. 활동 그룹원들이 최소 1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과 과업에 맞게 활동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양육자들의 활동영역과 생각의 폭이 나와 너에서 우리,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이 동반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사, 출산, 복직 등으로 인한 잦은 환경변화는 활동의 방향성을 흐리고 모임의 기반을 다시 제자리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2. 영유아 양육자들의 활동목적과 기관이 바라는 목적이 일치되게 공동육아 활동의 방향성을 합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영유아 시기일수록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기에 양육자의 가정 내 돌봄 시간은 길다. 때문에 양육자들의 공동육아 활동목적은 돌봄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눌 육아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은 공동육아로 양육자들의 1차적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경험이 지역 안에서 나뉘지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영향력 있는 활동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공동육아 활동에 대한 양육자와 기관이 바라는 활동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양육자들은 육아를 하면서 심리·정서적 요인 외 신체적으로도 지쳐가는 상황에 공동육아 활동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동육아 활동경험이 지역 안에서 확산되는 과정에는 영유아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양육자, 실무자가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역활동은 실무자가 계획한 틀 안에서 양육자가 역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실무자는 양육자가 지역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스스로 새기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영역과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독려하는게 중요함을 잊으면 안된다.

3. 초기 단계에서의 기관 주도로 모임이 형성되었기에 기관의 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활동 또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은 양육자들의 관계를 잇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력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간과 예산이라는 물리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됨에 있어 공간과 예산이라는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이에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양육자들은 기관의 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아직 삼전복지관의 사례는 없지만

활동이 중단될 여지도 크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실무자는 공동육아 모임의 기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원기간과 합의된 목적 안내, 그리고 모임 컨설팅 등 공동육아가 자생력을 갖춘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삼전복지관에서는 다년간 주민대상 조직화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내부적인 주민조직화 운영 단계를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동부동 사업은 공동육아 모임을 중심으로 2단계 예비조직 단계에서 운영되었다. 이에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경험이 자신과 가족을 넘어 지역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고민, 어려움을 가진 양육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실질적으로 공동육아 모임이 2단계 탐색 및 예비조직단계에서 운영되었고, 이후 3단계 주민조직 단계로서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경험상 이사, 출산, 복직 등 환경적 변수가 많은 시기적 특성도 간과할 수 없는 한계임을 알았다. 지난 3년을 끝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 및 필요성을 인지했기에 영유아 양육자 대상 부동부동 사업은 연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3단계 주민조직 단계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지난 사업 과정 속에서 형성된 공동육아 모임들은 기관의 최소한의 역할과 지원으로 4단계 독립준비단계로 보고 모임활동 지속을 위한 자생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양육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시켜 영유아 양육자들의 관계망 형성 및 확장이라는 취지에서 또 다른 모습의 사업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

행복마을팀 주민조직화 단계

구분	1단계 - 유입	2단계 - 탐색 및 예비조직단계		3단계 - 주민조직단계	4단계 - 독립준비단계
정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복지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1년차	2년차	주민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활동기반을 잡아가는 단계	주민조직만의 지역사회 비전을 갖고, 복지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여 예비조직단계로의 이전을 시도하는 단계	주민들의 활동이 자신과 가족을 넘어 지역으로 뻗어나가 지역사회 속에서 조직의 목표, 가치를 찾는 단계.		

* 각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가야만 주민조직화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조건에 의해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며 나중에 가야 할 단계를 앞당겨 할 수도 있음

다 기대 : FGI를 통해 본 결론 및 제언

삼전복지관에서 3년간 진행된 부동부동 공동육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이 주축이 되어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기존에 알려진 협동조합 형태의 출자금을 낸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육아의 사업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로 자신들의 아동을 직접 가르치며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참여자 중심의 진행형식, 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온라인 공간마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콜라보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공동육아 사업은 우선적으로 참여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과 보육기관 적응에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참여 당사자들인 엄마들 역시 이 사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 향상, 양육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어 임파워먼트가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시민의식을 돌아보게 되는 등 성숙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역시 좋은 효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동육아 사업은 자녀 양육역량 향상과 가족기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공동육아를 자신의 아이뿐만 아닌 마을과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돌아보는 일, 모임활동을 통해 공감과 위로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 나아가 이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그리고 자녀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들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자, 복지기관, 지역사회에 몇 가지 요청을 하였기에 FGI 결론을 마무리하며 제언한다.

첫째, 공동육아 사업은 아동양육의 개념을 넘어서 육아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생태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관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도였다. 이 사업을 통해 육아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효과적이며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육아 모임이나 육아 네트워크 사업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시대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주도하며 여러 관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기관중심의 협력적 활동은 매우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동육아 사업은 보육기관 입소 전,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아동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사업과 교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육아에 대해서는 짧게는 취학 전, 길게는 학령기 까지 필요하고 이후로도 기대하고 있다는 참여자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 이후로도 자녀의 연령과 발달 시기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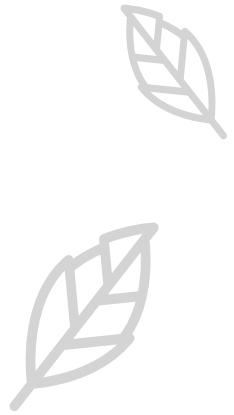
셋째, 향후 복지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육아 모임의 온라인, 오프라인 지속적 연계 및 강화, 교육, 소통의 장 마련, 대관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체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새로운 욕구 개발을 발굴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주민교육과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틀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기관 중심의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도를 해 본 매우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육아 생태망 조성과 주민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록



공동육아 진짜 시작을 위한
실무가이드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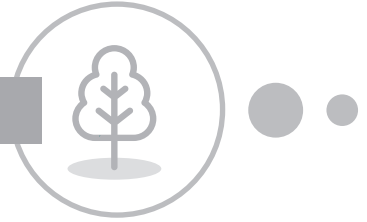
2018년을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약 3년간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끝으로
[공동육아의 진짜 시작을 위한 실무가이드]를 발간한다.

앞선 내용들과 달리 실무가이드에서는
진행과정에서 실무자가 느꼈던 어려움과 한계를 바탕으로
공동육아 시작을 위한 단계별 역할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노하우를 면밀히 기록하였다.

공동육아 사업의 첫 시작이 막연함과 부담감보다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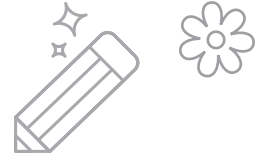
본 가이드가 공동육아 사업에 관심있는 기관,
이제 막 공동육아 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의 실무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경은



제1부.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사업 이해	99
Ⅰ. 공동육아 품앗이 정의	101
Ⅱ. 공동육아 운영목적	101
Ⅲ. 공동육아 활동 대상	101
Ⅳ. 공동육아 팀 운영현황	102
Ⅴ. 공동육아 진행을 위한 실무자의 역할과 자세	102
제2부. 공동육아 운영 절차	103
Step 1. 공동육아 밑그림 그리기	106
1. 공동육아 사업 지향점 설정	106
2. 공동육아 활동 연령 규정	106
Step 2. 공동육아 참여자 모으기	107
1. 참여자 유입 방법	107
2. 홍보경로 및 수단	109
Step 3. 단단한 관계 만들기	111
1. 활동안내 및 동기부여	111
2. 공동육아 시작을 위한 기반 다지기	113
Step 4. 공동육아 활동 지속화 및 양육자 의식 확장	115
1. 양육자 주도의 공동육아 활동 지원	115
2. 공동육아 활동영역 및 의식 확장	118
Step 5.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126
1. 의견수렴활동	126
2. 활동목표 평가	127
※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조성	128
1. 내부적 환경조성	128
2. 외부적 환경조성	132

제3부. 사업관련 서식	135
[서식 1] 열린옷장 물품대여 신청서	137
[서식 2] 개별면담지	138
[서식 3] 온라인 설문조사지	139
[서식 4]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 계획서	141
[서식 5]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 보고서	142
[서식 6] 공동육아 그룹 활동 신청서	143
[서식 7] 송파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실태조사 설문지	144
[서식 8] 아름인 도서관 이용자 방명록	147
[서식 9] 아름인 도서관 대관 신청서	148
[서식10] 아름인 도서관 대관 출석부	149
[서식11] 양육효능감 척도	150
[서식12] 사회적지지 척도	152



부록

제1부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사업 이해



제 1부.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사업 이해

I. 공동육아 품앗이 정의

공동육아 품앗이에서 공동육아와 품앗이는 각각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먼저 공동육아는 여러 집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자가 한곳에서 기르는 일을 뜻한다. 품앗이란 일을 서로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전복지관에서는 공동육아 본연의 목적과 품앗이의 형태를 더해 **공동육아 품앗이란 학습, 놀이 등의 품을 나누고 싶은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엄마 주최의 활동을 기획·진행하며 육아노동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쉽게 말해 공동육아 품앗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주제의 품앗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II. 공동육아 운영목적

삼전복지관의 공동육아 사업은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를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 된 '아이', '육아'라는 관심 영역을 주제로 한 조직화를 시도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육아를 함께하는 모임 안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동영역을 점차 지역으로 확장하며 '더 나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운영 목적이었다.

III. 공동육아 활동 대상

우리 기관은 양육자 간 관계망 형성 및 확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공동육아 활동을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 및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IV. 공동육아 팀 운영현황 (2018년~2021년 4월)

연번	그룹명	인원	활동월령	대표	활동년도	비고
1	알록달록팀	4가족 (엄마-자녀) 총 9명	-15.11월생~16.03월생 자녀 대상 활동	정*정	2018.03~	-
2	신육마	5가족 (엄마-자녀) 총 10명	-17.01월생~17.03월생 자녀 대상 활동	전*희	2018.06~	-
3	사과나무	3가족 (엄마-자녀) 총 8명	-17.04월생~17.10월생 자녀 대상 활동	조*영	2019.04~	-
4	동그라미	3가족 (엄마-자녀) 총 6명	-18.04월생~18.08월생 자녀 대상 활동	유*희	2019.04~	-
5	핑크베베	4가족 (엄마-자녀) 총 8명	-19.01월생~19.04월생 자녀 대상 활동	-	2020.12~	-
6	참새맘 북클럽	8가족 (엄마-자녀) 총 16명	-17년생~18년생 자녀 대상 활동	정*영	2020.12~	온라인 활동
7	닭큐멘터리	5가족 (엄마-자녀) 총 10명	-17.02월생~17.07월생 자녀 대상 활동	이*정	2018.06~ 2020.12	2020.12 종결

V. 공동육아 진행을 위한 실무자의 역할과 자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사업의 지향점 그리기 및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하기 · 지역사회 환경분석을 통해 공동육아 사업에 대한 활동육구 및 수요 파악하기 · 지역 내 영유아 사업기관 및 유사기관의 진행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양육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고민하기 · 실무자로서 고민되는 사업 계획 및 방향은 활동 양육자와 소통하며 풀기 ★ 양육자 스스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의식화하기 ★ 연차별로 지역활동 및 공동행동을 위한 영역확장 이끌기 ★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영유아 양육자 조직화하기



부록

제2부

공동육아 운영 절차



공동육아 사업 운영 절차

<p>기 타.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조성</p> <p>1. 내부적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 - 공간대관 - 공용물품 구비 <p>2. 외부적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실무자 간 관계맺기 - 각 기관별 고유 역할에 따른 연계협력 지점찾기 - 공동목표 수립에 따른 활동 진행 	<p>Step 1. 공동육아 밑그림 그리기</p>	<p>1. 공동육아 사업 지향점 설정</p> <p>2. 공동육아 활동 연령 규정</p>	
	▼		
	<p>Step 2. 공동육아 참여자 모으기</p>	<p>1. 참여자 유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운영 프로그램 - 특강 프로그램 - 공동육아 신청 접수를 위한 상시 게시판 운영 <p>2. 홍보경로 및 수단</p>	
	▼		
	<p>Step 3. 단단한 관계 만들기</p>	<p>1. 활동안내 및 동기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p>2. 공동육아 시작을 위한 기반 다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활동 - 활동규칙 수립 	
▼	조 직 화	<p>1. 양육자 주도의 공동육아 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운영 - 공동육아 팀의 자조적 운영 지원 <p>2. 공동육아 활동영역 및 의식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우리끼리 모임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단계 모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 및 시야 확장 - 3단계 경험 전수 및 공동행동을 통한 활동영역 및 의식 확장 	
▼		<p>Step 5.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p>	<p>1. 의견수렴활동</p> <p>2. 활동목표 평가</p>

Step 1. 공동육아 밑그림 그리기

공동육아 사업 진행을 위한 구조 설계 단계

공동육아 사업의 필요성과 욕구는 파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실무자는 본 사업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 후 이에 맞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역할 해야 할 과제를 수립한다.

1. 공동육아 사업 지향점 설정

- 공동육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에 따른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계획수립
- 예를들어 공동육아 사업의 목적이 양육자의 양육 부담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라는 '개인적 측면'에 있는가, 양육자들의 공동육아 활동경험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여러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는 '집단적 측면'에 있는가 등 공동육아 활동 참여 양육자들의 변화와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

삼전복지관 운영사례)

- * 삼전복지관의 공동육아 운영목적 및 지향점
양육자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한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만들기
- * 지향점 설정에 따른 우리의 주요 실천 과제
 - 양육자들의 관계를 잇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교류활동지원
 -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를 위한 공동육아 모임 조직화 및 대·내외 육아 생태망 조성활동

2. 공동육아 활동 연령 규정

- 공동육아는 0세에서 만 18세 이전까지 놀이, 학습, 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가능. 사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활동연령이 다름
- 삼전복지관은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모임을 위한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취학 이전으로 보고 있지만, 송파구 공동육아 나눔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대상연령을 폭넓게 설정

Step 2. 공동육아 참여자 모으기

이용 문턱을 낮춰 참여자를 유입하는 단계

공동육아 나눔터, 열린 육아방 등 지역 내 영유아들을 위한 활동 공간은 양육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으며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관은 평소 이용해 본 적 없는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기관이기에 영유아 전문 기관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과 이용 가능 대상층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접근성도 낮다.

공동육아 활동 대상층이 명확해졌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 대상 공동육아 사업을 홍보하거나, 후속모임 꾸리는 등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 홍보로 사업을 알리고, 양육자를 유입한다.

1. 참여자 유입 방법

가 프로그램 운영

○ 상시 운영 프로그램

- 사업명 : 열린옷장
- 내용 : 백일, 돌 행사에 필요한 소품, 드레스·한복 등 의류 대여 사업
- 운영방법
 1. 홈페이지 내 '열린옷장' 게시판 운영을 통한 대여 신청 접수
 2. 이용자 방문 시 **서식 1** 열린옷장 물품대여 신청서 작성
 3. 이용사항 안내 및 반납 전 사용 후기 작성
 4. 반납 시 소품 및 의류 상태, 후기 작성여부 확인
 - (실무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열린옷장 운영시스템 구축, 후기 관리
 - (이용자) 개인 SNS 혹은 홈페이지 열린옷장-이용후기 게시판에 후기 등록

Tip. 열린옷장 이용은 무료이며 운영목적은 양육자 유입이다. 때문에 **단순히 물품대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후기를 남겨 사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 삼전복지관의 경우 많은 이용 후기들로 인해 [삼전복지관] 검색 시 열린옷장이 연관 검색어로 생성되었고 이를 통해 공동육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 특강 프로그램

- 사업명 : 이유식 프로그램
- 내용 :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프로그램, 유아간식 및 반찬만들기 활동 각 4회기로 운영
- 운영방법
 1. 조리활동을 위한 개수대, 식기구 확인 및 필요물품 구입
 2. 1회기 활동 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활동목적 및 취지 설명
 3. 요리활동 시 2인 1조 그룹형성으로 양육자 간 관계형성
 4. (가능하다면) 활동 전 마음열기 시간 혹은 활동 후 소감나누기 진행으로 참여자 간 소통기회 마련

Tip. 본 활동은 어린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자녀돌봄과 요리를 함께 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발생한다.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면 여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 간 관계형성에도 도움 된다. 또한, 요리활동 참여가 주요 목적이 아닌 만큼 첫 회기에 양육자들의 동의하에 단체 메신저방을 만들어 팀 미션을 주거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여러 소통기회가 주어지면 좋다.

- 사업명 : 책놀이 프로그램
- 내용 : 책 읽어주는 방법, 책과 관련된 독후활동 2회기로 운영
- 운영방법
 1. 영유아 및 양육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인
 2. 책 선정 및 책 관련 독후활동 진행
 3. 활동 후 운영목적에 맞춰 공동육아 홍보 및 공간이용 안내

Tip. 유입단계의 프로그램 운영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이를 참여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공간홍보가 목적이라면 프로그램 전 복지관에서 일정 시간을 갖고 공간 소개 및 이용안내가 필요하며 공동육아 모임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활동 전·후 양육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티타임 등을 통해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화센터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순 참여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나 공동육아 신청 접수를 위한 상시 게시판 운영

- 홈페이지 내 공동육아 신청 게시판 운영
 - ※ 주소 : www.samjeon.or.kr
-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양육자는 상시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공동육아 활동 신청
 - ※양육자 이름, 연락처, 거주동, 아동이름, 아동 개월 수, 아동성별, 양육방식, 참여경로 수집
- 신청자 중 유사 월령을 중심으로 4-5가족 모인 경우 사업 운영 시기에 맞춰 모임형성 지원
- 참고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참여자 선정 및 모집기준]
 -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 및 양육자
 - 송파구 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우선선발
 - 복지관 인근에 거주 하는 자
 - 본 사업 내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정기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

Tip. 공동육아 신청 게시판을 상시운영 됨으로 다수의 양육자가 대기를 등록한다. 그러나 유사 월령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모임을 형성하다보면, 공동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모임형성 시 활동대상을 유사월령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공동육아 활동요일 및 시간을 정해 참여가능한 양육자를 모집한다면 더 많은 양육자들이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홍보경로 및 수단

홍보경로를 다양화 할수록 많은 양육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홍보 외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복지관 홍보채널
 - 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프러스채널, 관내 게시판 등 복지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로 활용
 - 장·단점 : 기존 이용주민 대상 홍보는 용이하지만 신규 주민대상 홍보는 제한적
- 지역 내 맘카페
 - 방법 : 다수의 양육자가 지역 맘카페를 통해 소통하며 정보 얻기에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맘카페를 찾아 가입한다면 정기적으로 영유아 사업 홍보 가능 ex)송파맘 카페
 - 장·단점 : 거주동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영유아 양육자 대상 홍보가 가능하나 가입 및 글 게시를 위한 등업 조건이 있어 단기간 내 카페 회원이 되는 것은 어려움

· 지역 내 보건·의료시설

- 방법 : 지역 내 양육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 약국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뒤 프로그램 홍보지 비치. 협조 시 홍보지 비치 기간에 대한 안내 필요
- 장·단점 : 지역 시설들과 호의적 관계형성이 중요함.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직접 홍보를 해주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관심 및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음

· 육아 지원기관

- 방법 : 가정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전에 전화문의를 통해 홍보지 게시 혹은 배포 관련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홍보지를 준비하여 기관에 전달
- 장·단점 : 육아 지원기관의 경우 이용 대상층이 명확하기에 목표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나 원아 수만큼 홍보지를 준비해야 함으로 다량의 인쇄물이 필요함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연계

- 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육아지원기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양육자들에게 1:1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운영하기에 보육반장들에게 사업홍보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면 더 많은 양육자들에게 홍보 가능
- 장·단점 : 지역 내 다수의 양육자가 보육반장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홍보경로에 비해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며 보육반장으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가 중요함

☞ 삼전복지관에서는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 후 실무자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에 담당자가 보육반장 모임에 참여하여 복지관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협조를 구할 수 있었고 실제 열린옷장 이용자 증가와 공동육아 홍보에 도움을 얻었다.

[조직화] Step 3. 단단한 관계 만들기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적으로 모이도록 독려하는 단계

Step3은 공동육아 활동을 위해 모인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중요한 단계이다. **조직화의 첫 시작은 양육자들이 활동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단계에는 삼전복지관에서 진행한 여러 프로그램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담았다.

더불어 2020년은 코로나 19 이후 많은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공동육아 활동 또한 비대면 만남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전복지관은 여러 방식의 활동전환을 통해 공동육아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에 관련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Step3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

1. 활동안내 및 동기부여

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공동육아 활동의 시작이자 조직화를 위한 첫 단계이다. 양육자들이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바라는 활동의 지향점을 나누며 서로의 역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때문에 실무자는 기관이 기대하는 공동육아의 모습, 역할, 방향성에 대해 양육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활동명 : 개별면담
- 진행형식 : 코로나 19로 여러 기관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양육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짐. 이에 개별면담은 양육자 선호에 따라 [대면/비대면]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

· 진행방법

- **서식 2** 개별면담지를 활용해 공동육아 시작 계기, 기대하는 점, 양육자의 강점 등 살피기
 - ※ 삼전복지관과 같이 양육자 관계망 형성 등 사업의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개별만담을 통해 평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 있는지 양육자의 생태망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 질문지는 사전에 배포하여 양육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면담

· 참고 [개별 면담을 위한 질문구성]

-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여부 / 현재 육아상황
- 공동육아 참여이유, 기대하는 점
-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재능 등

Tip. 개별면담이 필수절차는 아니나 우리 기관의 경험 상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육아에 대한 기관과 양육자의 생각차이를 좁힐 수 있고 양육자 각자가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 추천하다.

· 활동명 : 집단 오리엔테이션

- 진행형식 : 앞으로 공동육아 활동을 같이 할 양육자와 담당자가 만나는 시간이기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

Tip.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 녹화본 전달 : 줌, 파워포인트 화면 녹화 실시
 -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참여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시간에 영상을 들을 수 있기에 가장 전달력이 좋고 효과적이다. 다만,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만큼 영상을 시청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구로 사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질의응답을 받은 뒤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자.
2.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 : 줌, 밴드 라이브 기능 활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진행도 방법이지만 사실상 양육자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상황에 실시간 온라인 방송도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게 집중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중 밴드의 밴드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면 실무자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은 채팅에 참여하여 소통 수 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이후 곧바로 녹화본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으니 이 방법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 진행방법

- 공동육아 개념, 활동 방향성, 운영지침 등을 소개하되 기관에서 공동육아 사업을 운영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

- 참고 [집단 오리엔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내용구성 및 순서]
 - 공동육아 개념적 설명, 필요성 안내
 - 삼전복지관 공동육아 운영방침 / 연간 운영일정, 지원 사항 [공간, 예산, 물품 등]
 - 활동 수칙 / 월별 활동계획서,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안내 / 타 팀 공동육아 활동사례 공유
 - **공동육아 지향점 설명 및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연차별 역할, 의무 활동 등 안내**
 - 참여자 인사나누기 [이름, 거주지, 자녀월령 등 소개를 위한 기준 정해주기]

2. 공동육아 시작을 위한 기반 다지기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모였지만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로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 누군가 대화를 주도하기 어색한 상황이다. 때문에 실무자는 마음열기 활동으로 양육자들의 관계를 잇는 다리역할을 한다.

가 마음열기 활동

-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 공동육아 활동 초반 최대 4회기, 약 20분의 마음열기 활동을 하되 그룹원들의 성향에 따라 회기 수 조 절하여 진행
 - (실무자) 마음열기 활동의 목적과 의도를 안내하고 양육자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 양육 가치관, 성향 등과 관련한 주제 선정 및 진행
 - (양육자) 자신의 감정·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 갖추기
- 참고
 1. 필수활동 : 마음표현 (한 주 동안 내가 느낀 감정, 요즘 나의 고민 등 사진·색깔 카드 등 사용)
 2. 마음열기 활동을 통해 다뤄지면 좋은 주제
 - 아이관련 정보공유 (우리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간식 등)
 - 공동육아를 통해 기대하는 점, 바라는 것
 - 공동육아를 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 ※ 진행 하다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에 1인 3분 제한 등의 규칙수립 필요
- ※ 이야기 나눔 시 종이 삼각대와 같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구 활용

나 활동규칙 수립

- 마음열기 활동과 병행.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후 양육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빠른 의견조율과 규칙 형성 가능
- 활동규칙 수립은 모임형성 초기단계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맞춰나갈 수 있기에 추천
- 활동규칙은 양육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나 모임을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조정가능

※ [활동규칙 수립 시 이야기 해보기]

- (그룹명) 각자 생각하는 그룹명을 하나씩 제안한 이후 투표를 통해 그룹명 정하기. 그룹명이 정해져야 모임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음
- (호칭정리) 밖에서는 보통 00엄마라고 많이 불리나 양육자도 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모임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00엄마가 아닌 00님, 00씨 등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게 좋은지, 호칭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함
- (실무자) 참고할 수 있는 타 그룹 활동규칙 공유, 이 외 운영방식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항목을 정리하여 **서식 3**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 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시키기
- (양육자)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의견내기
- 사례예시 : 삼전복지관 공동육아팀 활동규칙
 - 사과나무팀 ①한 달에 최소 2번이상 참여하기 ②지각은 30분 이상 하지않기 ③코로나 확진자 400명 넘으면 각 가정에서 개별키트 활동하기
 - 참새맘 북클럽팀 ①서로 시간지키기, 어른과 아이모두 존중하기 ②처음 정한 것들은 책임감 있게 이어나가기 ③불만이나 불편사항은 대화로 풀기, 말 함부로 안하기 ④책 읽고 만나기, 줌 약속 시간 지키기 ⑤줌참여, 카페참여는 적극적으로 ⑥혹시 모이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하기

Tip. 공동육아 활동주제 정하기

참새맘 북클럽은 온라인 공동육아팀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기관 자체적으로 그림책이라는 명확한 주제로 활동을 시도하였지만 오프라인 모임은 자녀들의 놀이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양육자들이 모인다. 이에 활동규칙 수립 시 독후활동/과학/오감놀이/미술/계절활동 등의 분야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계획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조직화] Step 4. 공동육아 활동 지속화 및 양육자 의식 확장

공동육아 운영 목적 및 지향점에 맞게 활동을 확장하는 단계

앞선 활동들로 양육자 간 관계가 다져지면 여러 교육과 활동으로 공동육아가 단단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tep 4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이 기대하는 공동육아의 활동 방향성에 맞게 활동영역 및 시각을 넓히는 의식화 과정**이다. 이에 실무자는 공동육아 모임이 친목도모를 넘어 주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육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직화한다.

1. 양육자 주도의 공동육아 활동 지원

가 공동육아 운영

- 매주 1회, 최소 월 2회 활동
- 매월 마지막 주 **서식 5** 활동보고서 및 차월 **서식 4** 활동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내 업로드
- 매월 3만원 상당의 활동물품 구입지원

수행 주체별 역할

실무자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계획서, 보고서를 통한 활동 모니터링 · 물품구입 지원 ·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의 활동 확장 및 의식화를 위한 활동 기획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6 공동육아 그룹 활동 신청서 작성 · 공동육아 활동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동 [월별 활동기획 및 진행] · 주 1회, 최소 월 2회 공동육아 활동 · 월 1회 활동계획서 및 전월 활동보고서 작성 · 활동계획서에 따라 월 3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신청 · 그룹 내 정해진 규칙 및 역할 이행 · 타 팀과의 교류활동에 적극 참여

· 사례예시

홈페이지 - 품앗이 소통공간 운영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 margin: 0;">공동육아 품앗이</p> <hr style="width: 30%; margin: 5px auto;"/> <p style="margin: 5px 0;">프로그램 소개</p> <p style="margin: 5px 0;">공동육아 신청</p> <p style="margin: 5px 0;">영유아도서관</p> <p style="margin: 5px 0;">열린웃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 0;"> <p style="margin: 0;">품앗이 소통공간</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 5px 20px;"> <p style="margin: 0;">품앗이 사과나무팀 3월 활동 계획서</p> </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 5px 20px;"> <p style="margin: 0;">품앗이 사과나무팀 2월 활동보고서</p> </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 5px 20px;"> <p style="margin: 0;">품앗이 동그라미팀 3월 활동보고서</p> </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 5px 20px;"> <p style="margin: 0;">품앗이 핑크베베 2월 활동보고서</p> </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 5px 20px;"> <p style="margin: 0;">품앗이 핑크베베팀 3월 활동계획서</p> </div> </div>
<p>- 월별 활동보고서 내 참여자 이름, 사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게시판 운영 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게시판이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지 않도록 유의한다.</p>	
공동육아 활동참고 사이트 안내	
<p>- 양육자들이 공동육아 활동 기획,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공유하면 좋다. 또한, 삼전복지관은 홈페이지 공동육아 게시판 내 품앗이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각 팀별 활동계획서와 보고서를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팀별로 진행된 활동을 서로 공유하며 참고한다.</p>	
월별 활동물품 지원	
<p>- 삼전복지관은 월별 3만원 상당의 활동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금 지원방식이 아니기에 물품 신청은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월별 일정금액의 물품구입비 지원 시 안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입 사이트 지정 : G마켓, 쿠팡 등 기관에서 정해놓은 사이트가 있다면 몇 개를 지정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다. 양육자가 직접 로그인을 하여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두도록 한다. * 양육자들의 구입물품 다양화 및 편리성을 위해서는 물품구입 사이트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 좋음. · 물품 구입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주 월요일 2시까지 장바구니 보관 ② 여러 팀과 사이트를 공유하는 관계로 장바구니 물품보관 후 캡처하여 SNS 메신저로 전송 </div> <p>- 활동 내용에 따라 월별 지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월 3만원 지원이라 하더라도 분기, 반기로 금액을 나눠 유통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면 된다.</p>	

나 공동육아 팀의 자조적 운영 지원

- 실무자가 염두 할 것은 공동육아 모임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원에 집중하는 것임
- 공동육아에 관심있는 양육자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육자들을 모아 관계를 잇고, 모임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역할 한 조력자(실무자)와 기관 자원의 영향이 큼
- 그러나 실무자는 모임형성과 활동의 안정화를 돕는 것 뿐 이후에는 양육자들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함. 기존 활동 팀의 졸업이 있어야 또 다시 새로운 양육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배·후배가 되어 경험을 나누는 선순환이 되어야 함
- 삼전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동육아 활동 팀의 자생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지원체계를 정립함

팀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기관의 역할

공동육아팀이 졸업하기 적절한 연차 ▶ 3년		
1단계	2년차	3년차
- 활동팀원 간 친목도모 활동 (양육자 지원활동) - 공동육아 활동을 위한 놀이활동	- 공동육아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원정보 제공 - 연차별 활동목표 수립을 위한 연1회 컨설팅 지원 - 공동육아 이해를 위한 사례나눔 및 공동체 교육	- 재정적 자립을 위한 시,도 공모사업 정보제공 - 공동육아 활동을 위한 놀이교육 (양육자의 주체적 활동 및 지역나눔활동 역량강화)

* 각 단계별 소요 기간은 그룹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실무자) 공동육아 활동이 온전히 양육자 중심의 자조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모임 스스로 '공간'과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외부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훈련이 필요함. 때문에 실무자는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단위의 주민모임 지원활동 등 각종 공모사업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함

📌 기관에 의해 형성된 모임이, 꼭 자생적으로 운영되도록 역할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지만은 않다' 이다. 하지만 삼전복지관은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를 형성하기라는 목적아래 기관의 역할은 양육자들의 관계를 잇고 모임을 안정화하는 단계까지 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이러한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면 이후 모임 간 네트워크가 활발해 지면서 주민중심의 육아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지난 3년간의 과정 속에서 기관의 필요역할을 찾아 정립했다.

2. 공동육아 활동영역 및 의식 확장

가 1단계 우리끼리 모임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활동명 : 역량강화교육
- 목적 :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양육자는 엄마라는 역할을 처음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교육은 양육자들이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추기 위한 여러 양육코칭을 통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 단단한 관계 기반의 공동육아 활동을 돕는다.
- 사례예시

1. [부모+자녀] 집단 양육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좋은 부모 · 행복한 아이 프로젝트 - 회기 : 그룹별 2회기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회 :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놀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족 당 20분씩 놀이평가를 진행함으로 그룹 내 순번을 정해 30분 간격으로 참여시간 조정 ② 2회 : 그룹별 집단 양육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그룹 내 놀이평가서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평가서를 기반으로 그룹별 양육상담 및 고민 나눔진행 ↳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양육코칭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같은 활동 그룹원 간 양육코칭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양육태도를 알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교육
2. [부모] 양육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①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한 양육자 성향파악 - 내 용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중심에너지를 이해하여 자신과 자녀 행동의 긍정적 의도 알고 이해하기 - 주 제 ② K-TABS 검사를 통해 아이 기질에 맞는 훈육방법 배우기 - 내 용 : 사전준비) 참여자 대상 K-TABS 검사지 배포 및 실시 K-TABS 검사를 통해 자녀모습을 확인 후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엄마상 알기 - 주 제 ③ 놀이교육 워크숍 - 스토리텔링 종이놀이기 - 내 용 : 공동육아에서 스토리텔링 종이접기 활용법 알기, 종이를 활용한 작품만들기 활동 진행

- 활동명 : 가족참여활동
- 목적 : 기관과 공동육아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동경험을 통해 아빠의 가정 내 육아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직접적인 관심은 아니지만 부부 간 일상적 대화 속에서 아빠가 공동육아 활동을 인지하고, 근황을 먼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의 활동지속력은 강화된다. 또한, 가족참여활동이 활발히 운영되면 이후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모임, 혹은 아빠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사례예시

1. 숲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아빠, 자녀 - 장 소 : 올림픽 공원 - 회 기 : 상,하반기 각 2회기 - 내 용 : 새싹 씨앗 등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숲에서 볼 수 있는 솔방울 도토리 등을 활용한 여러 활동 진행 - 만족도 설문진행 방식 및 문항 : 아빠대상 사전·사후 포토보이스 '나에게 육아란?' 을 주제로 참여 전·후 사진+소감 발송 <p>☞ 아버들은 복지관이라는 존재가 낯선 상황에 엄마 없이 아이와 단 둘이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겠지만 주말 오전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았다. 다만, 유사한 활동을 기획한다면 한부모 가정도 고려해 아빠와 자녀가 참여하도록 권장하나 엄마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p>
2. 신체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온 가족 - 장 소 : 복지관 내 강당 - 내 용 <p>·엄마) 엄마들 간 다과회를 통한 자유로운 대화 나눔 ·아빠와 자녀) 걸음마 놀이, 색판놀이, 스킨십 스트레칭 등 전문 강사 진행의 신체활동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설문 진행 방식 및 문항 : 부부대상 당일 설문조사 ·아빠) 본 행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좋았던 점, 차후 아빠참여활동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 ·엄마) 차후 영유아 양육자 간 교류를 위해 함께 하고 싶은 활동

<p>3. 가족송년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온 가족 - 장 소 : 복지관 내 강당 - 내 용 : 당해년도 진행활동 공유 및 차년도 계획 안내, 가족 케이크 만들기 진행 - 만족도 설문 진행 방식 및 문항 : 부부대상 당일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빠) 엄마와 자녀의 공동육아 품앗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한 팀에서 활동하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는지, 차년도 팀별로 토요일에 아빠도 참여하는 공동육아 활동 시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엄마)1년 간 함께 활동한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지, 차년도 각 팀별로 토요일에 아빠도 참여하는 공동육아 활동을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p>📌 가족송년회는 참여인원에 따라 월령 혹은 그룹별로 시간을 나누어 제한인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활동은 케이크 외에도 트리 만들기 등의 주제와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족송년회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재미있게 놀이 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양육자들의 만족감이 높다.</p>
<p>4. 아빠참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온 가족 - 장 소 :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 강당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부) 아빠 : 이론교육 / 엄마·자녀 : 자유놀이 ·2부) 온가족 참여 : 아빠를 중심으로 아이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방법을 주제로 강사의 놀이시연 후 아빠·자녀 실습활동 - 만족도 설문 진행 방식 및 문항 : 아빠대상 당일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 자녀의 공동육아 활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 자녀와 함께한 놀이시간이 아빠의 육아참여에 도움이 되었는지 · 앞으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필요한지 · 아빠모임이나 교육이 있다면 참여의향이 있는지 <p>📌 우리 기관에서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아빠참여활동을 시작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및 아빠 자조모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다. 아빠참여활동은 위에 제시한 활동 외 놀이교육 워크숍 등 아빠만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후속모임으로 꾸리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p>

나 2단계 모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 및 시야 확장

- 활동명 : 육아자조모임 간 교류활동
- 목적 : 여러 육아 자조모임과의 만남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동 할 것 인지 모델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양육자들은 생각보다 타 그룹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서로의 활동을 궁금해 하기에 교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다양한 양육 모델이 되어 코치하기도 하고 타 양육자 대상 코칭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사례예시

<p>1. 선배맘 만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선배맘(지역 내 육아자조모임 혹은 복지관 공동육아팀), 후배맘(복지관 공동육아팀) - 진행방식 : 선배맘으로 참여한 그룹이 공동육아 활동사례, 노하우 등을 나누고, 후배맘으로 참여한 그룹이 활동관련 질의사항을 물으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 ↳ 후배맘들은 선배맘의 활동 사례와 활동규칙을 참고해 팀 내 적용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나누며 공동육아의 순기능을 스스로 느끼는 계기가 된다. - Tip. 선배맘을 초청할 때는 자조모임의 활동 유형을 놀이, 학습 외에도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모임 등 후배맘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폭넓게 매칭하면 좋다. 우리 기관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 소속 공동육아 팀 중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팀, 종합사회복지관 중 초등자녀 양육자모임 등과의 연계를 진행했다. 이 외로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단체를 통해 서울시에서 자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을 소개받는 방법이 있다.
<p>2. 공동육아 활동공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복지관 소속 공동육아 활동 그룹 - 진행방식 : 연말 송년회 겸 활동공유회 진행을 통한 당해년도 활동내용 공유 및 2019년 운영계획 안내, 참여 양육자 간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활동 시간제공 - 사전준비 : 사전에 활동내용 공유를 위한 공통된 ppt 양식을 배포하여 각 그룹별로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그룹별 한 명씩 활동공유회 당일 팀을 소개하고, 준비한 ppt 내용을 발표하도록 준비 ↳ 활동공유회의 목적은 팀 간 만남을 주최하여 운영방식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때문에 1부. 그룹별 활동내용 공유 및 조별 소통시간 2부. 만들기 체험활동 등 약 2시간의 시간구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 Tip. 참여자 수에 따라 조를 편성한다. 각 조당 같은 그룹원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타 그룹 양육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실무자는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과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질문지로 준비하여 조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된다. (ex_공동육아 활동 중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 공동육아 활동 이후 개인/가족의 변화 등)

다 3단계 경험 전수 및 공동행동을 통한 활동영역 및 의식 확장

- 활동명 : 선배맘 활동
- 목적 : 공동육아를 시작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양육자들에게 공동육아 선배맘이 되어 활동경험을 나눔으로써 지역 내 공동육아 모임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실무자는 양육자들이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의 장을 만든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1-2개의 신규 그룹을 조직하였기에 기존 그룹이 선배맘이 되어 품앗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 사례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 : 기존 공동육아 활동팀이 공동육아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규 그룹 양육자들에게 선배맘이 되어 공동육아 활동시작을 돕는 조력자로 역할 - 내 용 : 활동사례와 운영 노하우 공유 - 선배맘 그룹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활동안내 ppt (그룹소개, 시작계기, 활동사례공유, 공동육아의 좋은점, 어려웠던 점 및 문제해결 사례, 활동노하우 등) ② 진행당일 팀 내 참석인원 확인 ③ 진행당일 ppt 발표 및 질의응답 <p>☞ 공동육아 품앗이 설명회 진행 시 정해진 형식이나 ppt 양식은 없다. 실무자는 선배맘 그룹에 설명회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선배맘이 팀 내 스스로 논의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돕는다. 양육자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은 상당하며 실무자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해낸다. 실제 알록달록팀의 경우 ppt 외 활동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당일 파트를 나눠 각자 업무분담을 해서 팀원 모두가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p>

- 활동명 : 지역활동 참여 _ 보육반상회 및 구청장과의 만남
- 목적 :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반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과 함께하는 보육반상회를 진행한다. 반상회 주제는 매년 다르지만 더 나은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이 보육반상회, 구청장과의 만남 등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 이러한 자리를 통해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례예시

보육반상회 참여
<p>- 양육자 역할 : 팀 내 논의를 통해 주제에 맞는 안건 준비</p> <p>- 활동사례 : 19년 5월 보육반상회</p> <p>·주제 : 지자체 및 영유아 관련기관 등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내용</p> <p>·참여자 : 알록달록팀 양육자 3명</p> <p>·발의안건</p> <p>① 흠놀이터 모래소독 및 그늘막 설치</p> <p>② 여러 유형의 공공 놀이터 개설</p> <p>③ 공동육아를 위한 활동공간 및 엄마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필요</p> <p>④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동육아 홍보</p> <p>·성과</p> <p>알록달록팀에게 보육반상회 참여는 지역 안에서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책을 고민해보는 계기이자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하면서 공동육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음. 또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ppt 자료 작성 및 사전자료 조사 등 회원들 각자의 역량이 다시 한 번 발휘됨을 확인함.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생각의 폭이 우리만의 활동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이 성과였음.</p> <p>·기타 : 참여 후, 활동소감 나누기 진행필요</p> <p>☞ 위 사례와 같은 보육반상회 참여는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약체결 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방법은 이 외에도 각 구의 마을의제 발굴활동 등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중요한 역할은 공동육아팀의 활동이 단순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낀점을 나누며 양육자 스스로 지역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것이다.</p>

- 활동명 : 공동행동 참여 _ 주민공청회 및 구민청원 진행
- 목적 : 공동행동은 육아관련 지역현안을 확인하고, 이 중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는 주민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무자는 공청회를 통해 발의된 안건들이 흘러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져 구민청원 혹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양육자들이 안건을 직접 발의하며 주민으로서 더 나은 육아환경 만들기를 위해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례예시

주민공청회 및 구민청원
<p>- 진행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송파구에서 아이키우기 어떠신가요?'를 주제로 서식 7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② 주민공청회 진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구청 제안 안건 선정 ③ 후속모임을 통해 주민공청회 선정 안건의 발의자들과 안건 구체화를 통한 구민청원 준비 ④ 후속모임 활동 양육자 대상 구민청원 발의 안건 최종점검 및 구청 홈페이지_구민청원 내 게시 ⑤ 주민공청회 참여 양육자, 맘카페 중심의 구민청원 게시글 홍보로 공감 수 증가 독려 ⑥ 약 3주간 구민청원 게시완료 후 처리결과 및 부서답변 확인 <p>△ 온라인 설문조사 시 주민공청회 홍보 및 진행목적을 안내하고 참여 희망여부를 함께 파악하면 설문조사 참여자가 주민공청회로 이어져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p> <p>- 실무자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들과 온라인 설문지 구성 · 주민공청회 참여자 확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값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내 게시, 희망자에 한해 우편발송, 메시지를 통한 공유 등 · 참여 양육자 간 후속모임을 위한 단체 메신저 방 개설 · 주민공청회 내 선정안건을 중심으로 구민청원, 혹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위한 후속모임 준비 · 선정안건의 발의자를 중심으로 안건 구체화 및 이 외 양육자 대상 지속적 관심과 참여 독려 <p>- 양육자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활동 양육자 : 온라인설문조사 설계 및 주민공청회 사전·사후회의 참여, 안건 발의 · 지역주민 : 주민공청회 참여 및 안건 발의 <p>- Tip. 주민공청회를 통해 선정된 안건을 발의하는 방안은 구민청원과 주민제안사업 신청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구민청원과 달리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의견이나 사업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안건의 성격 을 보고 구민청원 혹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나눠서 신청하면 좋다.</p>

공동육아팀의 조직화 단계에서 활동영역 및 의식확장을 위한 단계별 운영방안은 지난 3년 간 공동육아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아래 단계에 따라 운영되지는 못했다. 더불어 각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기관 및 팀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운영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는 공동육아 기획 단계에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양육자들이 여러 활동들을 단계별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조력했으면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육아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양육자들과 공유하면 서로의 역할을 숙지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활동영역 및 의식확장을 위한 단계별 운영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끼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양육자 역량강화교육, 가족 참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 및 시야 확장 → 지역 내 공동육아 자조모임과의 만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맘이 되어 후배맘에게 활동 노하우 및 경험 전수 - 공동육아 활동의 지역적 확장으로 지역 내 공동육아 활성화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에 참여 → 선배맘 활동, 주민공청회 참여 및 구민청원 진행, 보육반상회 및 구청장과의 만남 참여 등

Step 5.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공동육아 활동이 계획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단계

실무자는 양육자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조직화] Step 4. 공동육아 활동 지속화 및 양육자 의식 확장단계부터는 양육자들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그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실무자는 모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불어 활동평가 시간을 가져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참여 양육자 스스로 공동육아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양육자, 복지관 각각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는 상·하반기로 나눠 공식적인 의견수렴활동 시간으로 진행한다.

1. 의견수렴활동

- 목적 : 의견수렴활동은 모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며 실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질문구성과 진행방식이 변경된다. 다만, 어떤 목적에서든 주기적으로 '나에게 공동육아란 어떤 의미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참여 양육자들을 의식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화는 양육자 스스로 활동의 중요성, 필요성을 떠올림에 따라 공동육아를 지속화하는 힘이 된다.

- 진행주제 ① 공동육아 활동 모니터링

[주요 질문]

* 공동육아 활동관련

- ①나에게 공동육아 품앗이란? ②앞으로 같이 할 수 있거나, 함께 했으면 하는 활동은?
- ③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점 ④내가 생각하는 육아공동체의 모습은?
- ⑤공동육아 활동이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 ⑥공동육아 참여 전, 내가 느꼈던 불안함과 어려움
- ⑦공동육아를 통해 내가 얻은 것,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 ⑧공동육아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운영관련

- ①공동육아 활동 지원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②올해 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활동 2가지

- 진행주제 ② 양육자가 생각하는 공동육아 알기

- 진행방식 :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활동소감 나누기

- 진행과정

① 간담회 전 공통과제 제시

- '나에게 공동육아 품앗이란 000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으로 남긴다.

② 간담회 진행 당일

- 각자 한 명씩 촬영한 사진을 보며 그룹원들 과 얘기를 나눈다.

-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간다.

[공통 질문사항]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관련 의견수렴 (공동육아 품앗이가 지속되기 위한 요인, 양육자가 생각하는 육아 공동체의 모습)

- 공간 및 활동관련 의견수렴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참여 후 참여자의 지역 내 관계망 변화

- 진행주제 ③ 공동육아 지속화를 위한 연차별 지원요소 알기

- 진행방식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후 결과공유

- 진행과정

①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공동육아 활동팀이 꾸려진 이후, 자립하기 적절한 활동연차

-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 현재 우리팀에 가장 필요한 요소

- 1~3년차 각 연차별 공동육아 팀 대상 복지관에서 필요한 지원 혹은 역할

② 간담회 진행 당일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공유 후 추가 의견 수렴

[공통 질문사항]

- 올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좋았던 복지관의 지원은?

- 차년도 우리팀은 어떤 모습, 혹은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하였으면 하는가

- 공동육아 활동을 하면서 공유하기 좋은 지역자원

- 공동육아 활동을 희망하는 양육자들에게 선배맘으로서 가능한 역할

2. 활동목표 평가

· 목적 : 공동육아 활동이 참여자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자 간 심리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검사를 진행한다.

- 진행방식 : 서식 11 양육효능감 척도, 서식 12 사회적지지 척도 사전 · 사후 척도검사 진행

기 타.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조성

내·외부적 환경 조성을 통한 공동육아 사업운영 준비

1. 내부적 환경조성 : 공동육아 시작을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

공동육아 사업의 첫 시작은 물리적 공간 마련이다. 공동육아 활동은 양육자와 자녀의 동반 하에 진행되는 만큼 영유아 자녀와 편히 앉아 활동할 수 있는 좌식공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걷기 전의 아이일수록 편하고 안전하게 기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내부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간운영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일수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담당자가 수시로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 공간일수록 이용자가 지킬 수 있는 규칙과 안전수칙을 세밀하게 수립한다.

· 사례예시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휴일 휴무

- 이용대상 : 60개월 미만 영유아 및 양육자

- 이용방법 :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및 대관신청 이 외의 시간에 자유이용 가능

- 운영수칙

① 60개월 미만 유아만 이용 가능 ② 유아 1명당 1명의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원칙

③ 장소 사용 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이용 하는 것이 원칙

④ 도서 대출불가 ⑤ 유아식 외에 음식물의 반입 금지

⑥ 기저귀 교환 시 기저귀는 화장실에 처리 ⑦ 다음 이용자를 위한 정리정돈 필수

⑧ 벽면에 낙서 및 유인물 등의 부착 불가

⑨ 장소 사용 시 발생하는 분실, 파손,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인에게 있음

- 이용자 작성 서류 : **서식 8** 아름인도서관 이용자 방명록

삼전복지관 영유아 전용도서관 모습



나 시설대관

삼전복지관에서는 영유아 전용 도서관을 자유이용과 대관형식으로 운영한다. 자유이용은 공동육아 활동 및 대관이 없는 시간에 한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모임활동 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대관 신청 및 이용수칙은 아래와 같다.

· 사례예시

- 신청 및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1. 홈페이지 '공동육아 품앗이'-영유아 도서관 게시판에 접속 후 안내사항 및 이용시간표 확인
2. 영유아 도서관 게시판 하단 대관신청서 작성 후 확인 전화 필수

- 이용일시, 이용시간, 이용자명, 연락처, 장소, 이용목적, 이용인원, 필요기자재 확인

3. 신청자에 한해 복지관에서 확인 후 전화연락

4 신청 일자 및 시간에 맞춰 방문 후 아름인 도서관 대관 신청서 작성

- 대관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30~15:30 / 토요일 별도 문의

* 공동육아 품앗이 정기활동 시간 외 이용 가능

- 운영형식

1. 일일대관 :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3가족 이상의 품앗이 모임

2. 정기대관 : 월 3회 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진행되는 3가족 이상의 품앗이 모임

- 운영수칙

① 사전 신청 팀에 한하여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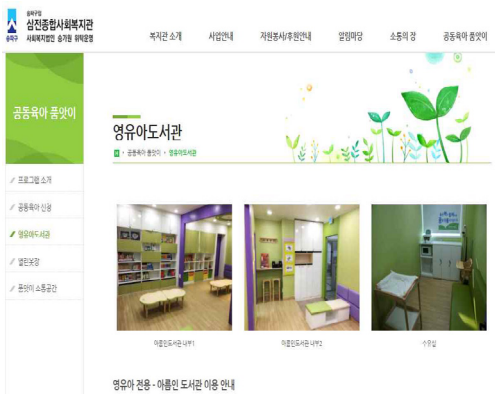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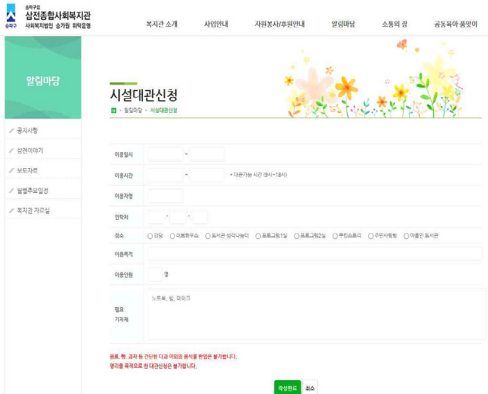
② 일일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③ 1개 모임 당 최대 3개월 고정 대관 가능 (추후 기간 연장 가능)

④ 기존 품앗이 활동팀 및 대관 신청팀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이용자 작성 서류 : **서식 9** 아름인 도서관 대관 신청서 **서식 10** 아름인 도서관 대관 출석부

시설대관 신청방법

공동육아 품앗이-영유아 도서관 게시판을 통한 안내	홈페이지 내 시설대관신청 게시판
 <p>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s main page for '공동육아 품앗이-영유아도서관'. It features a top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복지관 소개', '사업안내', and '운영마감'. A central banner highlights '영유아도서관' with a green and white floral theme. Below the banner are three photos of the library's interior, labeled '이점도서관-내부1', '이점도서관-내부2', and '외부입'.</p>	 <p>The screenshot shows the '시설대관신청' (Facility Reservation) form on the website.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예약일자' (Reservation Date), '예약시간' (Reservation Time), '예약자명' (Reserver Name),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주소' (Address), '예약목적' (Reservation Purpose), and '예약인원' (Reservation Capacity). There are also radio button options for '연락처' (Home, Office, Mobile, etc.) and '주소' (Home, Office, etc.). A '예약신청' (Apply) button is at the bottom right.</p>

다 **공용물품 구비**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몇 가지 물품은 공용으로 구비해놓으면 좋다.

· 사례예시

물품명	내용
체온계	<p>-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체온측정은 필수가 되었다. 또한, 영유아 일수록 각종 감염병 및 바이러스에 취약하므로 입구에 체온계를 구비하여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p> <p>☞ 서식 8 아름인도서관 이용자 방명록 내 체온 측정 후 기록</p>
장난감 소독제 또는 소독기 비치	<p>- 영유아 시기에는 물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입에 넣거나 빨기 일수다. 장난감을 통해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공간 내 장난감 소독기를 비치해 장난감 별 주기를 정해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소독기 구입이 어려운 경우 소독티슈, 알코올세정제 등 다양한 소독도구로 주기적으로 세척한다.</p> <p>☞ 여름과 가을철에는 영유아가 수족구가 전염되는 사례가 많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난감과 이용공간에 대한 소독이 더욱 중요하다. 공간 소독은 연 2회 정도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p>
물티슈 및 티슈	<p>- 양육자가 기본적으로 챙겨 다니는 물건이지만 공간 내 음식 섭취, 활동 등의 과정에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 공용물품으로 구비해 놓으면 더욱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p>
공용활동 물품	<p>- 장난감 외 양육자 중심의 자유놀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색종이, 가위, 도화지, 풀, 풍선 등 다양한 활동거리들을 공용물품으로 제공해주면 좋다.</p> <p>☞ 매년 분기·반기 등 공용물품과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공간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필요물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목록 안에서 구입한다면 이용자들 스스로도 공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p>

2. 외부적 환경조성 : 영유아 사업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각 지역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영유아 양육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사 사업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유아 사업기관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면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연계·협력 가능 지점을 찾아 영유아 양육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과 기관의 역할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삼전복지관의 사례를 나눈다.

가 유관기관 실무자 간 관계맺기

연 2회, 실무자 간담회 진행으로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만나 영유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각 기관별 여러 사업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한다. 처음 진행되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일 것 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이에 따른 활동들을 모색하여 본다. 관련하여 실무자 간담회 진행 시 사업 공유를 위한 기관 자료는 각자 준비해오기로 한다.

나 각 기관별 고유 역할에 따른 연계협력 지점 찾기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영유아 양육자들이 모여 공동육아 활동을 진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들의 육아고민 및 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반장 사업을 통해 밀착형 정보전달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보육반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육자를 지원하는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고, 보육반장들은 이를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양육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타 기관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정보수집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논의할 수 있다.

다 **공동목표 수립에 따른 활동 진행**

송파구 영유아 사업기관인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의 세 기관 실무자는 ‘지역 내 공동육아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합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육아실태조사

지역 내 공동육아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육아 모임 희망여부, 활동목적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서식 7 송파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공동육아 리플릿 제작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육아 시작 및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리플릿에는 공동육아 설명, 활동기관, 활동방법 등을 소개하여 관심있는 양육자들이 공동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안내서로 활용하였다.

〈리플릿〉 송파구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공동육아 활동가이드



영유아 사업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단계는 지역 내 공동육아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우선 기관 내부적으로 공동육아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진 후 외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 별 실무자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가 다르기에 외부적 환경조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꾸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주축이 되는 기관에서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이끌 필요가 있다.



부록

제3부

사업관련 서식



서식 1 열린옷장 물품대여 신청서

열린옷장 물품대여 신청서

신청항목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아 <input type="checkbox"/> 여아	월령	<input type="checkbox"/> 백일 <input type="checkbox"/> 돌
	의 류	<input type="checkbox"/> 한복 <input type="checkbox"/> 턱시도 <input type="checkbox"/> 드레스	상세트	<input type="checkbox"/> 일반상 <input type="checkbox"/> 전통상
일 자	수령	2021. . .	반납	2021. . .
대여자 성명			연락처	010 - -
주 소	서울시 송파구			
프로그램 안내	<input type="checkbox"/> 동 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동의자에 한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영유아 양육자 프로그램을 '문자'로 안내 합니다.			
[열린옷장 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p>본인은 귀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열린옷장 물품을 대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1. 법정공휴일은 대여가 불가능하며, 복지관 사정에 따라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p> <p>2. 물품 대여 중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변·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여 신청서에 기록된 반납 일자를 준수한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과 조정된 반납 시기를 전달한다.</p> <p>※ 물품 대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p> <p>※ 의류의 경우 착용 후 세탁 필수</p> <p>※ 물품대여 및 사용 후 후기작성 : 홈페이지 > 공동육아 품앗이 > 열린옷장 > 후기공유</p> <p>상기 신청인은 위의 규칙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물품대여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종합시스템(진우정보)을 활용한 회원등록 및 실적입력 - 프로그램 관련 안내 및 공지사항, 일정 안내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이용한 정보제공 - 이용자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를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 복지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 내 사진게시 <p>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 프로그램 이용 관련 추가정보제공 동의(우측 표) <p>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 <p>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신청은 가 능하나 프로그램 진행 안내에 대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5. 귀하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외부 업체에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p>		
<p>■ 위와 같이 열린옷장 이용안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안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서식 2 개별면담지

2018년 공동육아 품앗이 ‘부동부동’ 참여 신청서

*일 시 2018년 월 일

*공동육아 품앗이 참여경험 예 아니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및 거주기간		
가족관계	성명	관계	소속	나이	품앗이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활동가능 요일 및 시간	오 전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오 후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참여 경로	<input type="checkbox"/> 복지관 게시판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지역 맘 카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품앗이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체크해주세요~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재 이용 중인 문화센터 혹은 유아기관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가까이서 자주 왕래하는 이웃 혹은 친구가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누구와 가장 많이 나누는 편인가요? <input type="checkbox"/> 가족(남편, 부모님 등) <input type="checkbox"/> 이웃 <input type="checkbox"/> 모임동기 <input type="checkbox"/> 기타ex)친구				
품앗이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도

서식 3 온라인 설문조사지

[1회기]

1. 내가 생각한 우리 팀 이름, 혹은 이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2. 운영방식
 - ① 1명이 그림책 추천 후, 각자 독후활동 아이디어 제시
 - ② 1명이 그림책과 독후활동 제시(순번정하기)
3. 그림책 읽기방식
 - ① 추천 책을 각자 구해서 개별적으로 읽는 방식
 - ② 실시간 줌 접속으로 1명이 책을 읽어주는 방식/기타
4. 독후활동 공유방법
 - ① 활동 후 댓글을 통한 사진+소감공유
 - ② 각자 동일시간에 독후활동 후, 줌을 통한 소감나눔
 - ③ 기타
5. 그림책 독서 및 독후활동 주기
 - ① 1주
 - ② 2주
 - ③ 기타
6. 예산활용 용도
 - ① 독후활동 필요물품 구입
 - ② 책구입(팀 내 돌아가면서 책구입)
 - ③ 기타
7. 줌을 통한 화상회의 주기
 - ① 필요하지 않다
 - ② 2주에 한번
 - ③ 한 달에 한번
 - ④ 독후활동 후 소감나누기 할 때
 - ⑤ 기타
8. 서로 지켰으면 하는 규칙, 혹은 약속
9. 보다 돈독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활동 혹은 시간

[2회기]

1. 그림책 분야는 각자 희망하는 분야로 폭넓게 가게 좋겠지요?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기타

2. 각자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데 좋을까요?

- ① 00님
- ② 별칭
- ③ 00씨
- ④ 기타

3. 활동순서는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 ① 사다리타기
- ② 자발성으로 신청
- ③ 기타

4. 월별계획/보고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① 해당 월에 활동하는 두 사람이 같이 작성
- ② 해당 월에 활동하는 두 사람 중 한사람이 계획, 한사람이 보고서 작성
- ③ 계획서는 해당 월에 활동하는 사람 2명이, 보고서는 별도의 서류담당자가

5. 활동 안에서 역할(리더/총무/서류작성/출석확인 등)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 ① 예
- ② 아니요

6. 역할을 정할경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① 대장(이라 부르고 총괄이라 적는다..) 활동진행점검 등
- ② 총무(나는 돈관리가 꼼꼼하다!) 월별 활동비가 잘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
- ③ 부대장(중회의 일정 및 시간 확인, 그림책 활동독려 등...)
- ④ 친목대장(소통 시 맞장구, 즐거운 분위기 독려 등)
- ⑤ 활동대장(활동관련 정보수집이 풍부하신분?)
- ⑥ 서기(기록은 내가한다! 월별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⑦ 정보대장(그림책 활동 이외에도, 육아에 도움되는 정보수집 o.k)

7. 회의에서 더 논의하거나 정해야하는 사항

서식 4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 계획서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 계획서

월, 팀

활동 일시	매주 요일 오전/오후 : ~ :			
활동 목적 및 주제				
활동 내용				
회기	일시	활동 내용	준비물품	비고
1				
2				
3				
4				

■ 예산지출 계획

물품명	산출근거	금액
총액 (3만원 이하로 계획)		

서식 5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 보고서

공동육아 품앗이 월별 활동보고

월, 팀

활 동 내 용		
일 시	품앗이 활동사진	사진설명
/ 요일 0시 ~ 0시		<input type="checkbox"/> 참여자 : <input type="checkbox"/> 장 소 : <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
/ 요일 0시 ~ 0시		<input type="checkbox"/> 참여자 : <input type="checkbox"/> 장 소 : <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
/ 요일 0시 ~ 0시		<input type="checkbox"/> 참여자 : <input type="checkbox"/> 장 소 : <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
예산집행 보고		
총지출금		

서식 6 공동육아 그룹 활동 신청서

공동육아 그룹 활동 신청서

그룹명				그룹 형성시기		년 월	
그룹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010 - -	
참가인원 수		성인 : 명 / 유아 : 명					
활동일정		매주 요일		활동시간		오전 / 오후 : ~ :	
공동육아 그룹원 현황							
연번	부모이름	자녀이름	성별	자녀 출생년월	거주동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동의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p>1. 공동육아 품앗이는 모임 구성원이 3가족 이상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p> <p>2. 이름인 도서관은 1일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p> <p>3. 장소 사용 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이 없는 내에서 이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p>4. 벽면에 낙서 및 유인물 등의 부착이 불가합니다.</p> <p>5. 다음 이용자를 위해 사용 후 정리정돈을 부탁드립니다.</p> <p>6. 공동육아 활동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분실, 파손, 안전사고)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p> <p>7. 본 신청서는 그룹 내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시 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본인은 공동육아 활동 그룹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룹 대표자 : (인)</p>				<p>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종합시스템(진우정보)을 활용한 회원등록 및 실적입력 - 프로그램 관련 안내 및 공지사항, 일정 안내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이용한 정보제공 - 이용자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를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 복지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 내 사진 게시 <p>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 프로그램 이용 관련 추가정보제공 동의(우측 표) <p>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 <p>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진행 안내에 대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5. 귀하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외부 업체에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p>			
삼 전 종합 사 회 복 지 관							



서식 7 송파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실태조사 설문지

<p>〈송파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실태조사〉</p> <p>- 목적 : 송파구 내 영유아 양육자들의 모임활동 파악 및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 확인을 통해 차년도 각 기관별 모임 외 송파구 전체 양육자들의 모임활동 지원</p>
<p>◆ 공통</p> <p>1. 제일 어린 자녀의 월령은 어떻게 되나요? (년 월생)</p> <p>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p> <p>3.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동은 어디인가요? ()동</p> <p>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육아 자조모임 혹은 육아 모임 활동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p> <p>◆ '예'라고 응답한 경우</p> <p>소속기관 (ex_복지관/센터 등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있나요?) ()</p> <p>2. 모임팀명 ()</p> <p>3. 참여인원 (참여양육자 인원만 기재) (명)</p> <p>4. 모임 횟수 (ex_ 주1회, 주2회) ()</p> <p>5. 현재 활동 중인 모임활동의 참여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p> <p>6. 모임활동 유형 ① 공동육아를 통한 놀이 ② 자녀교육 및 육아정보공유 ③ 친목 ④ 엄마들의 역량강화(스터디 모임 등) ⑤ 기타</p>

7. 모임활동 참여는 어떤 경로로 하게 되었나요?

- ① 지인소개 ② 맘카페 ③ 온라인 검색 ④ 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 이용기관에서 정보제공 ⑤ 기타

8. 모임활동의 참여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자녀양육 부담과 양육스트레스 경감
② 육아정보 공유
③ 자녀의 또래친구 만들기
④ 엄마의 동네친구 사귀기
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⑥ 기타

9. 모임활동을 통해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양육 부담 해소
② 육아 스트레스 해소
③ 육아 정보 공유
④ 자녀와의 친밀도 향상
⑤ 자녀의 사회성 발달
⑥ 기타

10. 모임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① 활동 준비에 대한 부담
② 공간 사용의 어려움
③ 정기적 참여의 어려움
④ 모임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 차이
⑤ 기타

11. 송파구 내 영유아 사업기관을 통해 가장 도움 받고 싶은 것

- ① 활동을 위한 공간대관
② 다른 모임팀과의 만남
③ 특강 프로그램 계획
④ 자녀대상 활동을 위한 정보공유
⑤ 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⑥ 기타

12. 기회가 된다면 다른 모임과 만남을 갖고 싶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 다른 모임과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경우

- * 대표자 명
- *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11-2. 선호하는 다른 모임과의 교류활동 방식

- ① 육아용품 나눔(ex.장터) ② 활동공유 ③ 친목활동 ④ 다른 모임과의 1대 1 만남
- ⑤ SNS 소통창구 마련 ⑥기타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1. 모임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모임 정보를 몰라서
- ② 활동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③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⑤ 기타

2. 추후 모임활동을 참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활동유형은 무엇인가요?

- ① 공동육아를 통한 놀이 ② 자녀교육 및 육아정보공유 ③ 친목 ④ 엄마들의 역량강화(스터디 모임 등) ⑤ 기타

3. 모임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① 이동거리 ② 활동공간 ③ 활동시간 ④ 활동내용 ⑤ 구성원 간 관계 ⑥ 기타

4. 개별적으로, 다른 엄마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 다른 엄마들과 만남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 응답

- * 응답자명
- * 연락처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4-1. 예라고 응답한 경우 선호하는 만남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 ① 자녀동반 프로그램 ② 엄마대상 부모교육 ③ 브런치 파티 ④ 친목활동 ⑤ 기타

서식 8 아름인 도서관 이용자 방명록

아름인 도서관 이용자 방명록

- * 수집 된 개인정보는 아름인도서관 일자별 인원집계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에 사용됩니다.
- * 이용자 모두 (유아 포함) 작성 부탁드립니다.

연번	이용일	이용자명	체온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수]	프로그램 문자안내 수신여부	연락처 [문자안내 신청자]
예)	11/30	김삼전-이석촌 (부모-자녀)	36.5/35.9 (부모-자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0000-0000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7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8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9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0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1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010-

서식 10 아름인 도서관 대관 출석부

아름인 도서관 대관 출석부

연 번	모임명	대표자 이름	대표자 연락처	공간 대관 날짜					총 대관일수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운영관련 요청사항	
기 타 문의사항	

서식 11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각 문항을 읽고, 그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 해주세요. (팀명 : 이름:)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 할 수 있다.					
2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	나는 아이의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6	나는 피곤할 때에도 내 아이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7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9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10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1	나는 내 아이에게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잘 가르친다고 느낀다.					
12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13	나는 아이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14	나는 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벌을 주고 지도한다.					
15	나는 일관된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도한다.					
16	내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17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18	나는 부모로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에 잘 대처한다.					
19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연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20	나는 내 아이를 잘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21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22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					
23	나는 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24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 할 수 있다.					
2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26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다.					

* 척도의 출처 : 국내외의 양육 효능감 척도와 문헌(신숙재, 1997; 조인경, 2004; 최형성, 정옥분, 2001;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Teti&Gelfand, 1991)을 기초로 조영숙 (2008)이 제작한 척도 사용.
 →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모아-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2016. 송경화 박사논문
 내 '양육 효능감 척도' 부분만 발췌 사용

서식 12 사회적지지 척도

〈 사회적지지 척도 〉

다음은 어머니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 외에 공동육아 품앗이 구성원들에게서 받는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각 문항별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를 하십시오, 한 문항마다 하나씩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 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품앗이에는 우리 아이에 관한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2. 품앗이에는 아이 키우는 나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					
3. 품앗이에는 내가 아이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4. 품앗이에는 내가 아이 문제로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5. 품앗이에는 아이 키우기는 중요하면서도 힘이 드는 일임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6. 품앗이에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 품앗이에는 아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8. 품앗이에는 필요한 경우, 내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9. 품앗이에는 내가 몸져누워 있거나 너무 바쁠 때, 가사나 아이 양육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0. 품앗이에는 아이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에게 그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 원척도)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적용연구)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향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서적 지지(1~5), 정보적 지지(6~7), 도구적 지지(8~10)

● 본 척도는 적용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본 사업에 맞게 일부 수정함.

1. 문항 중 (3번. 내 주위에는 아이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줄 사람이 있다.) 제외
2. 문항 중 '주위 사람'의 범주를 '품앗이'로 제한

메모



공동육아 실무용 매뉴얼 ‘부동부동 사업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행인 강경은

편집인 강경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전 화 02-421-6077

홈페이지 www.samjeo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공동육아
실무용 매뉴얼



송파구립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위탁운영



사랑의열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TEL 02.421.6077 FAX 02.421.6079 Web www.samjeon.or.kr